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音樂學碩士學位論文

김승근 작곡 <대금협주곡 1번>
분석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국악기악전공
김가령

김승근 작곡 <대금협주곡 1번> 분석 연구

지도교수 임 재 원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국악기악전공
김 가 령

김가령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 원 장	김 경 아
부 위 원 장	김 승 근
위 원	임 재 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금연구회의 제 13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위촉된 김승근 작곡의 <대금협주곡 1번>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작곡가의 음악 세계와 전체적인 악곡 구조를 파악하고 악곡의 선율 및 화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의 형식은 합주협주곡 형식(Concerto Grosso)으로, 관현악 파트의 솔로선율 및 Tutti선율이 Solo대금과 서로 대립 및 화합하여 연주되는 것을 통해 독주악기군과 합주군이 대비를 이루는 합주협주곡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해금선율이 Solo대금과 더불어 주선율을 연주하는 경우가 잦아 Solo대금과 해금을 독주악기군, 타 파트를 합주군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합주협주곡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악기편성은 Solo대금과 소금, 대금, 피리, 해금, 장구, 대고, 박, 대아쟁으로, 일반적으로 관현악에 편성되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현악기군이 포함되지 않는, 정악의 관악합주와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국악관현악 편성이다.

셋째, 단락장으로 이루어져있는 이 곡은 박자와 선율의 진행방식,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A-B-C단락으로 구분된다. 각 단락은 도입-전개-마무리에 해당되며, 단락별 특징선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A단락에서는 선율의 4도와 5도의 도약 및 하향진행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며, A단락의 클라이막스에서는 도약 및 하행이 혼합된 응용진행을 찾아볼 수 있다. B단락은 강한 썸여림과 높은 음역대가 사용되며, 연음형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곡의 선율 진행과 대비되도록 순간적으로 소리가 부딪히는 음향효과를 사용해 곡의 전개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A단락의 변형형태의 재현부인 C단락에서는 A

단락에서 주로 사용된 4도 및 5도 하향과, B 단락에서 일부 사용된 모방형식이 사용되어 A-B-A'의 악곡구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단락이 대칭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곡의 박자 또한 대칭구조이다. 해당 악곡의 박자는 4+3+5+3+4/4박으로, 가운데 박인 5박을 중심으로 대칭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섯 마디가 한 Phrase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박자체계는 전통음악에서 나타나는 박자와 유사하여 각 마디는 한 대강으로, 다섯 대강을 한 각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음계는 정악에서 주로 쓰이는 E \flat , F, A \flat , B \flat , C 의 5음 음계가 사용되며, 선율진행 및 장단, 악기편성도 관악합주와 유사하여 정악적 색채를 느낄 수 있다. 장구장단은 갈라치는 형식을 사용하며, 매 단락 '박'의 신호로 단락이 마무리된다. 선율 진행은 연음형식을 사용해 합주 시에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소리를 맺기 전 타파트가 맞물려 나오도록 한다.

여섯째, <대금협주곡 1번>의 화성체계는 작곡가가 동양철학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화성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음양의 조화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서양음악의 화성법적 체계와 구분된다. 각 Phrase 별로 연주되는 악기의 중심음을 분석한 결과 비화성음이 사용된 I 도 혹은 V 도 진행이 가장 많았으며, 화성 구성음의 음간격은 전통 음악에서 많이 나타나는 2도와 4도, 5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어 : 대금, 대금협주곡, 합주협주곡, 국악관현악, 음과 양

학번 : 2015-21946

목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II. 김승근의 음악세계	7
III. <대금협주곡 1번>의 작품 개관	10
1. 작품 개관	10
2. 작품 구성	12
1) 출현음	12
2) 악곡 구성	14
IV. <대금협주곡 1번>의 선율 분석	18
1. A 단락의 선율 진행 및 특징 선율 분석	18
2. B 단락의 선율 진행 및 특징 선율 분석	30
3. C 단락의 선율 진행 및 특징 선율 분석	46
4. 소결	57
V. <대금협주곡 1번>의 화성 분석.....	59
1. A 단락의 화성 및 음양 성질 분석	61
2. B 단락의 화성 및 음양 성질 분석	72
3. C 단락의 화성 및 음양 성질 분석	87
4. 소결	97
VI. 결론	98

참고문헌	101
------------	-----

Abstract	103
----------------	-----

부록악보	106
------------	-----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창작국악의 효시는 김기수¹⁾의 <황화만년지곡>²⁾(1939)이다. 초기의 창작국악은 주로 독주 기악곡이나 성악곡, 합주곡 위주의 곡들로 작곡되었다가, 1957년에 최초의 협주곡 형식을 갖춘 김희조의 <피리와 관현악을 위한 민요스케치>가 작곡되었다. 1965년 조재선³⁾이 최초의 대금협주곡인 <젓대를 위한 시나위>⁴⁾를 작곡하였고, 이후

1) 이왕직아악부 출신으로 한국창작음악을 개척한 죽헌(竹軒) 김기수(金琪洙)(1917-1986). 그가 지향한 창작음악은 주로 관현악곡을 작곡하면서 악기 편성과 음량의 확대와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장대한 국악'과 <송광복>, <과봉선>, <정백혼> 등 역사적 사건이나 민족적인 주제에 충실한 작품들이 보여주듯이 '시대의 국악'으로 집약할 수 있다. - 윤중강 外, 국악의 향연 5 한국의 현대 창작음악 (서울:중앙일보사, 1988)

2)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국악연혁』에서는 창작국악곡의 효시를 1939년 이왕직아악부의 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이라고 하면서 이 곡이 '신국악 개화기의 효시적 생산품 제 1호'라고 적고 있다. - 국악연혁 (국립국악원, 1982)

3) 조재선(1938-2004): 경기도 이천 출생. 국립국악원부설 국악사양성소 1기생으로 입소하여 대금을 전공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2학년 때 작곡으로 전공을 바꾸어 정회갑에게 사사를 받았다. 1966년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슬리안 대학원에서 종족음악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대금이수자이며, 국립국악원에서 대금연주자로 활동하였다. 경북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교수를 역임한 조재선은 대금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론가로서 다양한 능력을 펼쳤다.

4) <젓대를 위한 시나위>는 1965년 조재선이 작곡한 작품이며, 서울대 음대 정기연주회에서 이해구선생의 추천으로 초연되었다. 이 연주회에서 조재선은 직접 대금을 연주하였다. 조재선은 이 작품의 후속곡으로 <가야고를 위한 시나위>를 발표하였는데, <가야고를 위한 시나위>는 '이재숙 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악협주곡이 작곡되었다.

‘경쟁’ 혹은 ‘협력’을 의미하는 콘체르토(Concerto)⁵⁾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협주곡은 독주자와 오케스트라가 협력과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 즉, 협주곡에서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음악적 긴장감과 하모니가 만들어진다.⁶⁾ 독주자와 오케스트라의 이러한 이중적 관계는 협주곡 내에서 독주악기의 표현력과 연주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대금협주곡 1번>은 콘체르토 중에서도 바로크 시대에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합주협주곡⁷⁾의 형태를 일부 적용하여 작곡된 곡이다. 합주협주곡이란 본래

야금 독주회’에서 초연되었다. 국립국악원 편,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10) 조재선』, 국립국악원, 2013, 89쪽

5) 바로크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즐겨 작곡된 기악의 대표적인 종류인 콘체르토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협주곡>이라고 한다. 현재의 정설에 따르면, <투쟁하다> 또는 <논쟁하다>를 뜻하는 라틴어의 concerto (-are, -atus)에서 시작해서, 같은 철자이면서도 전혀 대조적인 <일치시키다> 또는 <협력하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바뀌었고, 1519년에 콘체르토는 이탈리아에서 음악용어로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성악만, 또는 기악만의 양상블을 뜻했으나, 적어도 1565년경까지는 성악과 기악이 공연하는 양상블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솔로 양식을 개척해 가는 바로크 시대의 도래와 함께, 라틴어가 뜻하는 <경쟁하다>라는 개념이 부활하여, 이후 콘체르토가 가지는 2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결과가 된다.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대비가 지배적인 고전파와 낭만파 시대는 어떻든 간에, 바로크 그리고 20세기의 콘체르토 작품에 있어서는, 콘체르토가 뜻하는 다양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폴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 1. 28., 삼호뮤직

6) 정소희, 『대금협주곡의 전개양상 및 음악특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7) 합주협주곡.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중 가장 중요한 형식으로서, 독주악기군(콘체르티노)을 오케스트라 전체(리피에노, 투티)와 대립시키는 콘체르토이다. 전형적인 경우, 콘체르티노는 2개의 바이올린과 통주저음으로 성립되며(트리오 소나타의 편성), 리피에노는 독주악기군을 포함하는 현악합

독주악기군(콘체르티노)을 독주악기군보다 큰 합주단 형태의 오케스트라 전체(리피에노, 투티)와 대립시키는 콘체르토이다. 독주악기군의 역할을 독주대금이, 리피에노의 역할을 소규모의 관현악이 맡게 되고, 소규모의 관현악 내에서도 대금이나 해금 등의 악기군이 솔로와 Tutti를 번갈아가며 연주하도록 되어 있어 음량의 대조를 느낄 수 있는 합주협주곡의 특징이 나타난다.

1960년대부터 2000년 이전에 창작되었던 대금협주곡들은 전통음악인 청성곡이나 시나위, 대금산조를 주제로 작곡된 곡들이 대부분이다. 2000년 이후에도 전통음악에 모티브를 둔 이상규의 <변조두거>(2004) 등 전통음악에 모티브를 둔 곡이 있지만, 12음 기법으로 작곡되거나 하모닉스, 플러터 등의 주법을 사용하는 등 현대음악적인 어법을 가진 곡들이 주로 작곡되었다. 이들은 기존 연주자들의 연주법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작곡되었으며, 연주자 개인의 향상된 연주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곡들이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는 상황으로 창작관현악에서도 장르의 경계가 모호해져 창작국악을 전통 국악에 모티프를 둔 장르가 아닌, 새로운 음악의 한 갈래로 보는 작곡가들의 성향이 반영되었다. 반면에 작곡가 김승근은 전통음악 선율의 아름다움을 창작국악에 녹여내고자 하여 정악적 어법을 사용하며, 악기 간의 울림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음향에 집중을 하는 작곡가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대금협주곡 1번>은 선율적 측면에서 그러한 작곡가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정악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악곡의 형식 측면에서는 서양음악

주(통주저음을 가진)였으나, 후에 관악기도 추가하게 되었다. 이 형태의 콘체르토는 트리오 소나타를 부분적으로 오케스트라화해서 음량의 대조를 포함으로써, 표현을 보다 동적(動的)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악장 구성도 트리오 소나타처럼, 느림—빠름—느림—빠름으로 된 4악장 구성을 기초로 하는 교회 소나타 형태인 것과, 무곡을 배열한 실내 소나타의 형태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파폴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 삼호뮤직

의 고전 협주곡의 형태를 띄고 있는 곡이다.

대금협주곡이 다양한 형태로의 발전을 거듭 해 왔으나, 합주협주곡의 형태로 작곡된 곡은 <대금합주곡 1번>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김승근의 <대금협주곡 1번>은 국악협주곡의 형태에서 실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금협주곡 1번>과 유사하게 합주협주곡의 형식을 적용하여 작곡되었던 김승근 작곡의 <해금합주협주곡 1번>에 대한 선행연구⁸⁾는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대금협주곡 1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 곡을 본 논문의 주제로 삼아 소규모의 국악 관현악⁹⁾과 독주대금의 선율 및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연주자의 입장에서 분석 및 해석되는 본 논문을 통해 타 대금연주자들이 실제 연주를 할 때 곡 해석 및 연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는 2013년 대금연구회의 정기연주회를 위해 위촉된 김승근 작곡의 <대금협주곡 1번>¹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곡의 음악적

8) 안혜진, 『김승근작곡<해금합주협주곡 1번>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국악관현악은 대체적으로 가야금, 거문고, 소금, 대금, 피리, 해금, 아쟁, 타악기군(장구, 대고, 모듬북, 공 등)의 편성으로 작곡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대금협주곡 1번>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가 빠진 형태로, Solo대금과 소금,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장구, 대고, 박의 편성으로 관악합주와 유사한 편성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국악관현악이라 칭하였다.

10) 2013. 6. 11(화) 오후 7시 30분에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제 13회 대금연구회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김승근 작곡의 <대금협주곡>은 마지막인 여섯 번째 순서에 연주되었다. 김성경의 지휘에 맞추어 연주되었고, 관현악은 서울국악관현악단, 독주대금은 장미영이 연주하였다.

특징을 정리하였다.

곡을 분석하기에 앞서 김승근 작곡가의 음악세계에 대해 알아본 후 <대금협주곡 1번>에 담긴 그의 작곡의도에 대해 연구하여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후 본격적인 악곡에 대한 분석으로, 악곡의 출현음 및 구조를 파악 한 후, 선율분석 및 화성분석을 통해 해당 곡에 내재되어있는 음악 어법을 살펴 볼 것이다.

선율 분석의 경우, 단락장으로 구성되어있는 <대금협주곡 1번>은 크게 A, B, C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단락별로 구분 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A, B, C 단락은 모두 4+3+5+3+4/4박의 같은 박자로 구성되어 있어 다섯 마디가 한 Phrase로 엮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자 진행에 맞추어 두 Phrase를 함께 묶어 선율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합주협주곡의 형식으로 작곡된 해당 곡의 특성에 맞추어 선율분석과 함께 독주대금과 관현악 합주의 상호관계, 그리고 독주대금과 관현악 파트의 독주선율 및 합주선율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락별 특징과 단락 내 주요 선율, 그리고 Phrase 진행에 맞춘 선율 변화와 악기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악곡에서 나타나는 화성 진행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작곡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화성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작곡가는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교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화성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대금협주곡 1번>에서 나타나는 화성을 분석하는 것이 해당 곡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화성분석의 경우 곡의 출현 음정을 양률과 음려로 구분하여 음의 성질을 알아보겠다. 화성분석 또한 선율분석과 마찬가지로 단락 및 프레이즈(Phrase)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각 파트별 진행에 따라 프

레이즈의 주요음정을 뽑아 음과 양으로 구분하여 화성을 구성해 곡에 내재되어있는 작곡가의 화성체계에 대해 연구하겠다.

분석에 사용된 <대금협주곡 1번>의 악보는 작곡가와 상의하여 협연자인 장미영에게 직접 받은 악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음원자료는 초연되었던 제 13회 대금연구회의 정기연주회의 공연실황 음원¹¹⁾을 국악방송에서 제공받아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11) 2013. 7. 2 국악방송의 라디오 'FM국악당'에서 제 13회 대금연구회 정기연주회의 공연실황 음원을 방송하였으며, 해당 방송의 음원을 제공받아 본 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II. 김승근의 음악세계

작곡가 김승근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악가인 모친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음악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198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악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입학 당시의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이론과 작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2년간 이론과 작곡을 병행수업 하였고, 3학년에 들어서 작곡을 전공으로 선택하며, 이때부터 국악작곡에 열정을 쏟아 부었다. 작곡으로 전공을 선택한 뒤 작곡가 김승근은 거문고 독주를 위한 <에밀레>, 관현악곡 <월인천강> 등의 작품을 작곡하고, 이들 작품을 통해서 동아 음악콩쿨과 대한민국작곡상을 수상하게 된다.

김승근은 기존의 전통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한국전통음악의 정신과 기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작품을 많이 작곡했는데, 이러한 작품경향은 대학 졸업 후 유학생생활을 겪으며 자리를 잡게 된다.

졸업을 할 당시인 1989년, 대학원 과정에 국악작곡 전공과정¹²⁾이 개설되어있지 않아 김승근은 헝가리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헝가리의 국내사정 및 음악계 사정¹²⁾이 그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기에 제한적이었기에 2년간의 헝가리 유학생생활을 거친 후 독일의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으로 옮기게 된다. 독일로 옮긴 후, 유학 생활 동안 배우고자 했던 작곡법과 20세기 음악사, 형식론, 지휘법 등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작곡가 윤이상과 만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음악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김승근이 표현하고 추구

12)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1989년 동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수교가 되었던 나라였으며, 작곡가 리스트의 나라이자 자국의 민속음악의 전통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국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힘들어져 새로운 음악을 접하기가 힘들었다. 여수연, 「김승근 작곡<해금독주곡 2004>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5-6쪽

하고자 하는 동양적 음악세계와 정신세계는 이미 윤이상이 작곡한 많은 작품들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김승근이 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해 작곡하게 된, 많은 서양악기를 이용한 곡들은 그동안 그가 고민하고 습득하였던 한국음악을 서양의 악기와 기술로 표현해내는 것에 대한 고뇌의 과정의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의 5년간의 헝가리, 독일 유학기간 중 그의 작품성향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994년, 유럽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김승근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한국 전통악기를 위한 여러 종류의 작품을 쓰게 된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조금 더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해 다양한 실험을 거쳐 실현되었다. 특히, 국립국악원과 현대음악앙상블 등의 위촉으로 작곡한 작품들은 국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김승근은 유학생생활에서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동양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화음체계를 연구하였다.¹³⁾

김승근은 해외의 음악축제를 보며 느낀 바가 있어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에 음악제를 만들었으며, 통영이 아시아권에서 현대음악의 메카가 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이자 통영국제음악제 이사를 맡고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 음악 프로젝트(Korean Music Project)를 운영하며 창작국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대금협주곡 1번> 외에도 김승근 작곡가의 <국악실내악을 위한 음악>과 <대금중주 제 1번>, <해금독주곡 1번>, <해금합주협주곡 1번> 등 다른 작품의 제목을 보았을 때 작곡가 김승근은 음악에 대

13) 여수연, 「김승근 작곡<해금독주곡 2004>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5-6쪽

한 본질과 음악 자체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절대음악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 제목은 곡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제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절대음악적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

절대음악은 표제음악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나 회화 등 다른 예술이나 음악 외의 표상(表像) 또는 관념과 직접 결부되지 않고, 또 연주의 기회나 장소를 고려함 없이, 스스로 그 법칙을 지니며(말하자면 자율적), 음의 구성면에 집중하면서 보다 깊은 것을 나타내려는 음악을 뜻한다. 작곡가 김승근은 본인의 음악으로 하여금 연주자가 직접 음악을 해석하고 음미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관객 또한 제목에 얽매이지 않은 채로 본연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곡가이다.

Ⅲ. <대금협주곡 1번>의 작품 개관

1. 작품 개관

본 고의 연구대상인 <대금협주곡 1번>은 2013년 대금연구회의 제 13회 정기연주회에서 위촉 초연되었던 작품이다.

다음은 <대금협주곡 1번>에 대한 작곡가의 곡 해설이다.

“대금독주와 소편성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전통음악적인 어법에 따르면서도 서양의 고전 협주곡 양식의 하나인 합주협주곡의 형식의 일부를 차용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느리게 연주되는 독주대금과 이와 보조적으로 진행되는 관현악의 선율을 통하여 전통음악적인 색채와 새로운 음향을 찾으려고 추구하였다. 대금연구회의 위촉으로 작곡되어 오늘 초연된다.” - 제 13회 대금연구회 정기연주회 팸플렛 中

위의 곡 해설을 살펴보면 음악어법은 전통음악적으로, 음악의 양식은 서양 고전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곡해, 어법과 형식에 분명한 대립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주를 통해 이들을 한데 어우러지도록 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사한 시대에 작곡된, 음악어법과 형식은 현대음악적으로 사용하지만 국악기만이 가지는 특유의 ‘음색’을 통해 국악적 느낌을 내는 김대성 작곡의 <대숲소리>나 <풀꽃>, 강은구 작곡의 <녹아내리는 빙하> 등의 대금독주 및 협연곡들과 비교했을 때, 국악적 느낌의 적용 방식 및 지향성의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작곡가 김승근은 과거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느린 음악을 작곡하는 것을 내 특징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옛날 음악은 아주 느린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있다. 그 안에는 어떤 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미학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서 유사한 곡을 작곡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옛날에 작곡된 정악 정말 좋다.”

“나의 음악은 연주자들 서로가 만들어가는 소리의 울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양적 음계가 포함되면 그 울림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국악기로 가장 안정적인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리인 5음 음계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한국음악의 멋은 선율이 겹겹이 쌓이면서 진행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묘한 울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서양음악을 작곡하는 내, 외국인 작곡가들이 한국음악에 관심을 가져 국악기를 위한 곡을 작곡하거나, 서양악기를 위한 음악에 국악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여 작곡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임준희나 토마스 오스본, 도날드 위맥, 김대성 등이 있다. 이들이 작곡하는 음악은 위의 예시로 들었던 <대숲소리>를 포함해 임준희 작곡의 <혼불> 시리즈, 토마스 오스본 작곡의 <Verses> 등으로, 이들 곡은 서양음악의 어법 및 형식 등을 사용하면서 전통 국악곡에서 자주 사용되는 국악의 시김새 및 농음이나 추성, 퇴성 등을 이용해 국악의 느낌을 내거나,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채가 드러나는 기법 등을 사용해 국악의 느낌을 내어 청중으로 하여금 서양음악과 국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하지만 김승근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그가 작곡하는 음악은 국악적 선율이 더욱 중심이 되어 정악적 색채를 표현하고자 하며, 그 정악적인 선율이 어우러지며 새로이 발생하는 음향에 무게를 두어 창작국악을 새로운 정악처럼, 더욱 전통음악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작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작품 구성

1) 출현음

김승근의 <대금협주곡 1번>의 악기편성은 독주대금과 소금, 대금, 피리, 해금, 장구, 박, 대고, 대아쟁으로 관악합주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대금과 피리, 해금은 각 약 6명 내외의 적은 인원이 연주한다. Solo대금 및 소금, 대금은 고음역대를, 피리와 해금은 중간음역대를, 대아쟁은 저음역을 맡아 무게감의 균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다수의 정악 합주곡에서의 역할과 같이 각 단락이 종료될 때 박이 마무리한 후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음정은 E♭ ≡ 黃으로 보아 실음에 가까운 정악의 율명을 함께 표기하며, 출현음은 Solo대금의 출현음과, 관현악의 출현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겠다.

<악보1> Solo대금 출현음



<악보2> 관현악 소금 출현음 - 편의상 옥타브를 낮추어 표기



<악보 3> 관현악 대금 출현음



<악보 4> 관현악 피리 출현음



<악보 5> 관현악 해금 출현음



<악보 6> 관현악 대아쟁 출현음



독주 대금을 포함한 전체 악기 모두 옥타브에 관계 없이 E \flat (黃), F(太), A \flat (仲), B \flat (林), C(南)의 다섯 음에서 벗어난 음정은 꾸밈음에서조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아 정악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5음 음계로 작곡하는 것을 지향하는 작곡가의 성향이 잘 드러난다.

2) 악곡 구성

단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A, B, C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A는 60마디, B는 80마디, C는 60마디로 총 200마디로, A와 C는 동일하게 60마디, B는 80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곡의 박자는 $4/4 + 3/4 + 5/4 + 3/4 + 4/4$ 로, 다섯 마디를 한 프레이즈(Phrase)로 보도록 되어 있다. 작곡가가 박자를 $4+3+5+3+4/4$ 로 표기한 것은 이 다섯 마디를 한 ‘각’으로 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한 프레이즈인 5마디는 국악에서의 한 각이며, 4, 3, 5, 3, 4 박을 가진 각 마디는 4, 3, 5, 3, 4 박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한 대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정악의 영산회상 중 상·중령산이나 세령산, 여민락 등의 많은 곡에서 6정간+4정간+4정간+6정간의 네 대강, 혹은 3정간+2정간+2정간+3정간의 네 대강이 모여 한 각을 이루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앞의 예로 들었던 상·중령산 혹은 세령산에서는 한 각 내 박자가 6-4-4-6 혹은 3-2-2-3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대금협주곡 1번>의 박자도 세 번째 마디인 5박의 마디를 기준으로 양 쪽의 박자가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박자의 대칭적 구조

$$\begin{array}{c} \overbrace{4+3+5+3+4} \\ 4 \end{array}$$

김승근 작곡가의 다른 작품인, 합주협주곡의 형태로 먼저 작곡되었던 <해금합주협주곡 1번>의 2-4번째 단락인 B-D단락의 박자가 <대금협주곡 1번>과 동일하게 $4/4 + 3/4 + 5/4 + 3/4 + 4/4$ 박자로

먼저 작곡되었다. <해금합주협주곡 1번>에 이어 유사한 형태와 박자를 사용한 것은 작곡가가 해금합주로만 작곡을 했던 곡의 형태를 대금협주곡에도 도입하며 악기편성을 관현악의 편성으로 더욱 다채롭게 해, 음향적으로 보다 풍부한 곡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했던 실험적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빠르기는 A 단락은 $\text{♩} = \text{ca.}60$, B 단락은 $\text{♩} = \text{ca.}70$, C 단락은 $\text{♩} = \text{ca.}50$ 으로 조금씩 바뀌며, 조성은 A b 조로 악곡의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다.

협연곡에는 대체적으로 독주악기의 Cadenza가 있기 마련이나 해당 곡에서는 Cadenza를 찾을 수 없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악곡 구성

단락	마디	빠르기	박자	조성
A	1~60마디	$\text{♩} = \text{ca.}60$	$\frac{4+3+5+3+4}{4}$	A b
B	61~140마디	$\text{♩} = \text{ca.}70$		
C	141~200마디	$\text{♩} = \text{ca.}50$		

위 작품개관의 작곡가의 말¹⁴⁾과 악기 별 출현음에서 알 수 있듯이, 작곡가 김승근은 곡을 작곡할 때 5음 음계를 주로 사용하며, 지속음을 통해 악기 간 울림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악보의 기보표기를 보면, 소금과 대금, 피리가 한 단락에 있으며, Solo 대금과 해금은 단독적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타악이 독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각 파트별로

14) “나의 음악은 연주자들 서로가 만들어가는 소리의 울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양적 음계가 포함되면 그 울림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국악기로 가장 안정적인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리인 5음 음계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한국음악의 멋은 선율이 겹겹이 쌓이면서 진행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묘한 울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묶어 표기한 것이며, Solo대금과 더불어 제 2솔로라 할 수 있는 멜로디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금은 타 악기들과 함께 묶여있지 않아 대금과 해금이 서로 협력 및 대립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악보 7> 악보 표기법

The musical score for '악보 7' is written for a chamber ensemble. It consists of seven stav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instrument: Solo 대금 (Solo Daejeom), 소금 (Sogum), 대금 (Daejeom), 피리 (Piri), 해금 (Haegeum), 박 대고 (Bak Dae-gu),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e-ajang).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a Solo section (measures 96-100) and a Tutti section (measures 96-100). The Solo section features intricate melodic lines for the Solo 대금 and 해금, while the Tutti section shows a more unified texture with all instruments playing together.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Dynamics such as *ff* (fortissimo) and *f* (forte) are indicated throughout the score.

악곡의 구성을 보면 A와 C는 60마디로 마디수가 동일하며, 이 두 단락은 시작 부분에서 관현악의 해금과 대금이 각각 Solo로 연주를 시작했다가 Tutti로 함께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Solo에서 Tutti로 변화하는 시점이 유사하다. 이는 이 작품이 대칭적 박자체계를 사용한 것처럼 대칭적 단락 구성을 사용해 악장의 구성 및 선율도 A-B-A'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관현악의 여러 악기들이 Solo로 시작 한 후 Tutti로 합주하는 형태를 A와 C 단락의 앞부분에 반복적으로 배치한 것은 합주협주곡의 솔로악기군과 합주악기군이 대립하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A-B-C로 나누어지는 각 악장 별 출현음의 높낮이와 리듬꼴로 보았을 때 A를 도입, B를 전개, C를 마무리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단락 내에서도 도입-전개-마무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주대금의

출현음 및 이후의 악곡 내 음정과 율명의 표기는 전체 파트의 출현음과 마찬가지로 黃 \equiv E \flat 으로 보아 실음에 가까운 율명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악보 8> A단락 독주대금 출현음



<악보 9> B단락 독주대금 출현음



<악보 10> C단락 독주대금 출현음



B단락에서는 A단락에 비해서 역취에 해당하는 높은 음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단락에서는 단 5개의 음정만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단락은 도입부로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박자와 리듬꼴로 연주되며, B단락은 A단락보다 잘게 쪼개는 박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시에 평균 음역대가 상승하고, 쎈여림표에 ff가 등장하여, B단락의 중반부인 약 86마디 부터 115마디까지를 클라이막스로 볼 수 있다. C단락에 들어선 이후에는 평취 음역대의 다섯 음 만으로 연주하며, 지속음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다.

IV. <대금협주곡 1번>의 선율 분석

1. A 단락의 선율 진행 및 특징 선율 분석

A단락은 1-60마디까지로 총 60마디이며, 빠르기는 $\text{♩} = \text{ca.} 60$, 박자는 $4+3+5+3+4/4$ 이다. 전체 악곡을 도입-전개-마무리로 보았을 때 도입부에 해당하는 단락이다.

A는 해금솔로로 시작해, 해금-대금솔로-장구-대고-대아쟁-Solo대금-소금-피리 순으로 등장한다. 향후 관현악 내 대금의 솔로와 Solo대금의 명칭에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관현악 대금의 솔로는 대금솔로로, Solo대금은 Solo대금으로 지칭하겠다.

A단락에서는 전 파트를 통틀어 4도 혹은 5도의 도약 및 하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지속음이 많은 A단락에서 음악적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장치이며, 전통음악적인 선율 진행을 위해 4도와 5도 진행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1-20마디

<악보 11> A단락 1-10마디

4+3+5+3+4 $\text{♩} = \text{ca.60}$ [A]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대아쟁

<대금협주곡 1번>의 도입부는 두 성부로 나뉜 해금 솔로로 시작하는데, 초반부 해금의 진행이 A단락 전체의 모티브가 되는 역할을 한다. 2마디에서 해금 윗성부가 E \flat -A \flat 으로 4도 도약을 한 후, 3마디에서 꾸밈음을 하며 B \flat -D로 4도 하향진행을 한다.

이 4도 상향 및 하향 도약은 직후 확대되어 6마디에서는 B \flat (-A \flat)-D의 진행으로, 앞서 사용되었던 2도진행을 함께 사용해서 A \flat 음정을 거치며 4도 하향하고, 하향된 D 음정은 C 음정을 향해 첫 5도 도약을 한다. 이 때 해당 C 음정은 강조를 위해 악센트를 주어 연주한다. C 음정으로 도약한 후, 한 각이 끝나는 10마디까지 약 4마디에 걸쳐 순차적으로 5도 하행하며 두 성부로 나뉘어있던 해금이 Tutti로 연주하게 된다.

<악보 12> A단락 11-16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1-16 of the A-measure is presented for several instruments. The Solo part (Solo 대금) begins at measure 16 with a mezzo-piano (mp) dynamic. The Tutti part (Tutti 대금) starts at measure 11. The score includes staves for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and 대아쟁.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major or D-flat minor).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shows a 5-degree interval (5°) between measures 14 and 15 for the Solo 대금 and between measures 15 and 16 for the Tutti 대금. The Solo 대금 part has a 5° interval between measures 14 and 15, and the Tutti 대금 part has a 5° interval between measures 15 and 16. The Solo 대금 part has a 5° interval between measures 14 and 15, and the Tutti 대금 part has a 5° interval between measures 15 and 16. The Solo 대금 part has a 5° interval between measures 14 and 15, and the Tutti 대금 part has a 5° interval between measures 15 and 16.

해금과 마찬가지로 두 성부로 나뉘어 도약 없이 2도 진행의 지속음으로 연주되던 대금은 해금을 따라서 11마디에 Tutti로 연주한다. 대금은 13마디부터 15마디에 걸쳐서 D-B \flat 로 5도, 해금은 13마디부터 16마디에 걸쳐서 C-F로 대금과 함께 5도 하행한다. 해금은 하향된 F 음정으로 16마디부터 20마디까지 5마디를 지속하는데, 해금의 음정과 맞물리도록 첫 Solo 대금이 16마디의 세 번째 음에서 등장한다. 이 때 Solo대금은 본인의 등장을 강조하며 제음-위의음-제음을 빠르게 연주하는 시김새를 사용한다. 아쟁은 대고와 같이 11마디에

첫 등장한다. 첫 박을 쉰 후 열 박을 최저음인 E \flat 으로 길게 지속해 곡에 무게감을 실어주며, 15-16마디에서 E \flat 에서 B \flat 으로 첫 5도 도약을 한 후 해당 음을 지속한다.

<악보 13> A단락 16-2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6-20 of the A-phrase. It features eight staves: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and 대아쟁. The Solo 대금 staff begins with a melodic line marked 'mp' at measure 16. The 대금 staff has a long note at measure 17 that extends to measure 20. The 장구 staff has a rhythmic pattern starting at measure 18. The 대아쟁 staff has a melodic line starting at measure 16.

17마디에서 대금은 20마디까지 3마디에 걸쳐서 C-F로 5도 하향하는데, F로 5마디를 지속하며 연주하던 해금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같은 음정으로 채우며 Solo대금의 F 음정과 옥타브로 만나며 횡적 관계가 된다.

A단락 전체의 제시가 되는 20마디, 즉 4각(4 Phrase)의 관현악의 대금과 해금은 Solo대금을 받쳐주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의 초반부 장구 장단은 두 마디 쉰 후 세 번째 마디의 첫 박에 기덕-궁의 형태로 출현한다. 해당 악곡의 박자가 상·중령산 등과 유사하게 느린 정악곡 박자체계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갈라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수제천이나 동동, 관악영산회상 등의 관악합주 곡들에서 자주 보여지는데, <대금협주곡 1번>의 악기편성이 관악합주 편성이기 때문에

갈라치는 형식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5마디 1프레이즈의 장구 장단은 40마디까지 8번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동동’의 박자에서 차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고는 11마디부터 출현하며, 11마디부터 A가 종료되는 60마디까지 각 프레이즈의 첫 마디에서 2박을 채우며 연주한다.

2) 21-30마디

A 단락의 허리가 되는 21마디부터 40마디까지의 20마디 구간은 방향과 도약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구간이다.

<악보 14> A단락 21-2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21-25 of the A-measure is presented across nine staves. The staves are labeled on the left: Solo 대금 (Solo Daegu), 소금 (Soju), 대금 (Daegu), 피리 (Piri), 해금 (Haegu), 박 대고 (Bap Dago), 장구 (Jingu), and 대아쟁 (Daajang).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Measure numbers 21, 22, 23, 24, and 25 are indicated at the top of each staff. The Solo 대금 staff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5° down-bow (5°↓) at measure 21, a mezzo-piano (mp) dynamic marking, and a 5° up-bow (5°↑) at measure 24. The 소금 staff has a 4° up-bow (4°↑) at measure 25. The 대금 staff has a 4° up-bow (4°↑) at measure 25. The 대아쟁 staff has a 4° down-bow (4°↓) at measure 25. The other staves (Piri, Haegu, Bap, Dago, Jingu) show various rhythmic patterns and rests.

21마디 Solo대금은 앞서 2도, 4도, 5도를 도약과 하향하던 대금과 해금에 이어 F에서 B♭으로 5도 하향진행하고, 이어 23마디까지 2도진행으로 음정의 큰 변화 없이 연주하는데, 이 때 소금은 Solo대금과 유사한 음정인 B♭과 C 음정으로, 대아쟁과 대금은 E♭음을 지속해 소금과 Solo대금, 대아쟁과 대금이 서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두 묶음의 악기가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마디에서 Solo대금은 B♭에서 E♭으로 첫 5도 상향도약을 하는데, 소금이 제음-위의음-제음을 빠르게 붙이는 꾸밈음을 사용해 이를 강조한다. 이후 26마디에서는 E♭-A♭로, 28마디에서는 F-B♭로 두 차례 하향하고, 28마디의 마지막 박부터 29마디까지 거쳐가는 음과 꾸밈음을 추가해 B♭에서 F로 도약하며, 상향 후에는 지속하던 음정인 F에서 다시 B♭으로 재 하향한다.

<악보 15> A단락 26-30마디

20마디까지 두 차례 5도 하향했던 대금도 Solo대금의 도약 이후 25마디부터 30마디까지 여섯 마디에 걸쳐 4도 도약과 하향을 반복한다. 25마디 대금은 F에서 B♭으로 4도 도약한 후, 지속하던 B♭에서 다시 F로, A♭음정을 거치며 세 마디에 걸쳐 4도 하향하고, 다시 F에서 B♭으로 도약한 후 종전과 같은 형태로 B♭에서 F로, A♭음정을 거치고 시김새를 사용하며 하향한다. 해금은 Solo대금의 출현 이후 약 7마디간 휴식한 후, A의 도입부와 같이 해금Solo로 출현하는데, 두 마디 후 30마디에서 두 성부로 나뉜다. 해금Solo와

해금Tutti가 서로 다른 선율을 연주해 Solo대금과 해금Solo를 독주 악기군으로, 타 악기를 합주악기군으로 여기도록 장치하여, 이 곡의 형식인 콘체르토그로소 형식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해금이 Solo와 Tutti로 나뉘어 연주되는 것은 37마디까지로, 이 같은 연주 방식이 10마디 가량 지속된다.

3) 31-40마디

해당 구간은 A단락 내 클라이막스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는데, 21-30마디에서 Solo대금이 두 번의 5도 도약과 네 번의 5도 하향 진행을 보인 반면 31-40마디에서는 다섯 번의 4도 및 5도 도약과 네 번의 4도 하향을 한다. 도약은 긴장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앞서 21-30마디의 구간에서 Solo 대금이 주로 도약 및 하향 진행을 했다면, 이 구간에서는 전 파트에 걸쳐 도약하며, 특히 Solo대금이 반복적으로 도약을 거듭해 곡의 긴장감을 높이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악보 16> A단락 31-34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31-34 of the A section is presented for a solo ensemble. The score includes parts for Solo Janggu (Solo 대금), So Janggu (소금), Daegu (대금), Piri (피리), Haegeum (해금), Bado (박고), Janggu (장구), and Daegajang (대아쟁).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score shows intervals for measures 31, 32, 33, and 34. In measure 31, Solo 대금 has a 4th degree up interval (4°↑), So금 has a 5th degree up interval (5°↑), and Daegu has a 5th degree up interval (5°↑). In measure 32, Solo 대금 has a 4th degree down interval (4°↓), So금 has a 5th degree up interval (5°↑), and Daegu has a 5th degree up interval (5°↑). In measure 33, Solo 대금 has a 5th degree up interval (5°↑) and a 4th degree down interval (4°↓), So금 has a 4th degree down interval (4°↓), and Daegu has a 4th degree down interval (4°↓). In measure 34, Solo 대금 has a 4th degree down interval (4°↓), So금 has a 4th degree down interval (4°↓), and Daegu has a 4th degree down interval (4°↓). The dynamic marking 'mp' is present in measure 33.

<악보 17> A단락 34-4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34-40 of the A-section is written for a chamber ensemble. The parts are Solo Alto (Solo 대금), Alto (소금), Tenor (대금), Bass (피리), and Percussion (해금, 박대고, 장구, 대아쟁).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ncludes interval markings (4° for 4th, 5° for 5th) and dynamics (mf, f). The Solo Alto part is the most active, with various intervallic leaps and dynamics. The other parts provide harmonic support and rhythmic patterns.

Solo대금은 30마디에서 31마디로 이어져 온 B♭에서 E♭음으로 4도 도약을 한 후, 32마디에서 곧바로 F에서 E♭를 거치며 C로 도달하며 4도 하향한다. Solo대금의 첫 4도진행이 등장한 구간이며, 하향을 할 때 2도 진행으로 거치는 음과, 8분쉼표를 함께 사용하였다. 33마디에서는 B♭-F로 5도 도약, F-C로 4도 하향하고, 35마디에서는 B♭-F로 4도 하향하여 31-35마디의 한 작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구간임을 알 수 있다. 35마디, 하향해서 도착한 F의 음정에서 3도+3도로 거처가는 음을 사용해 36마디 C에 도착하고, 이후 37마디에서 B♭-F로 5도 도약, 38마디에서 E♭-B♭로 5도 도약하는 등 하향진행 없이 세 차례 연달아 도약하여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다, 40마디에서는 본격적인 클라이막스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마디로, Solo대금은 A♭-E♭로 4도 하향진행을 한다.

31마디에서 32마디까지 두 마디에 걸쳐 관현악의 대금이 E♭-B♭의 5도 도약한 후, 도약한 음정인 32마디의 B♭에서 F로 4도 하향을 하면, 이를 이어받아 소금은 34마디에서 36마디까지 세 마디를

E-B \flat 으로 4도 하향한다. 이후 대금은 36마디부터 40마디까지 다섯 마디에 걸쳐 F-B \flat , B \flat -E \flat 으로 두 차례 4도 도약한 후, 40마디에서는 E \flat -B \flat 으로 Solo대금과 마찬가지로 4도 하향한다. 소금은 36마디부터 38마디까지 세 마디에 걸쳐 B \flat -F의 5도 도약을 하는데, 이 F음정에 꾸밈음을 붙이고 40마디까지 3마디를 지속한다. 40마디에서는 Solo대금과 관현악 대금의 진행을 따라 F에서 B \flat 으로 5도 하향진행한다.

31-40마디는 해금이 Solo와 Tutti로 나뉘어 연주하다가 다시 만나는 구간으로, 35마디부터 38마디까지는 두 파트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는 형식으로 연주한 후 38마디의 두 번째 박부터 다시 하나의 선율을 연주한다. 35마디 해금Solo는 F-B \flat 으로 4도 도약하는데, 해금Tutti는 E \flat -B \flat 4도 하향한 후 B \flat 음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한 옥타브 위의 B \flat 으로 도약한 Solo해금은 세 마디에 걸쳐 천천히 F로 하향한 후, 38마디에서 해금Tutti와 만나 E \flat -B \flat 의 5도 도약을 한다. 해금과 피리, 대아쟁의 세 악기군은 4도 및 5도 하향한 소금, 대금군과 달리 2도 상향하는 형태로 40마디를 마친다.

장구 장단은 40마디까지 앞의 형태와 동일하게 연주되지만, 매 단락의 첫 박만 연주하던 대고는 38마디 두 번째 박에 출현하여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을 알린다.

4) 41-50마디

41마디부터 50마디의 구간은 A 단락의 클라이막스로, 4도 혹은 5도로 도약 및 하향하던 패턴이 변화 및 발전하여 4도 도약+2도 하향, 5도 도약+2도 하향, 4도 하향+2도 도약 등 혼합적 음 진행이 새롭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악보 18> A단락 41-46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41-46 of the A-measure is written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geum):** Measures 41-46. Intervallic patterns: $4^\circ + 2^\circ$ (41-42), $4^\circ + 2^\circ$ (43), $4^\circ + 2^\circ$ (44), $5^\circ + 2^\circ$ (45), $4^\circ \uparrow$ (46). Dynamics: *mf* starting at measure 43.
- 소금 (Sogeum):** Measures 41-46. Sustained notes.
- 대금 (Daegeum):** Measures 41-46. Sustained notes.
- 피리 (Piri):** Measures 41-46. Intervallic patterns: $4^\circ + 2^\circ$ (42), $5^\circ \uparrow$ (43), $4^\circ + 3^\circ$ (46).
- 해금 (Haegum):** Measures 41-46. Intervallic patterns: $4^\circ \downarrow$ (41), $5^\circ + 2^\circ$ (42), $4^\circ \downarrow$ (44), $4^\circ + 2^\circ$ (45).
- 박대고 (Bakdaego):** Measures 41-46. Sustained notes.
- 장구 (Janggu):** Measures 41-46. Sustained notes.
- 대아쟁 (Daesaejeong):** Measures 41-46. Intervallic patterns: $5^\circ \uparrow$ (43), $4^\circ \uparrow$ (46).

각 Phrase의 세 번째 마디에서 출현하던 장구는 41마디에서 처음으로 첫 박을 연주한다. 이후 장구는 60마디 A단락이 끝날 때 까지 점점 박을 잘게 쪼개며 연주한다. Solo대금은 41마디부터 44마디까지 네 마디를 거치는 동안 C-F-E \flat 으로 4도 도약+2도 하향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여 새로운 음 진행을 반복 및 강조하며, 이는 직후 확대되어 45마디에서는 B \flat -F-E \flat 으로 5도 도약+2도 하향한다. 피리는 Solo대금의 음 진행을 일부 모방하여 42마디에서 44마디까지 세 마디에 걸쳐 C-F-E \flat 으로 4도 도약+2도 하향한 후, 45마디에서 Solo대금이 도약을 시작하는 음정인 B \flat 으로 5도 도약한다. A단락의 처음 부분 해금이 A단락의 모티브를 제시한 것처럼, Solo대금이 5도 도약+2도 하향의 진행을 보이기 전, 43마디에서 F-C-B \flat 의 5도 도약+2도하향의 진행을 먼저 선보인다.

<악보 19> A단락 46-5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A-measure 46-50 is presented across eight staves. The instruments are Solo 대금 (Solo Daejeom), 소금 (Sogum), 대금 (Daejeom), 피리 (Piri), 해금 (Haegeum), 박 대고 (Bak Dae-gu),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e-ajang). The score includes various interval markings: Solo 대금 has $4^\circ + 2^\circ$ (measures 46-47), $2^\circ + 5^\circ$ (measure 48), and $4^\circ + 2^\circ$ (measure 50); 소금 has $3^\circ + 4^\circ$ (measure 48); 대금 has $4^\circ \downarrow$ (measure 48); 피리 has $4^\circ \downarrow$ (measure 48); 해금 has $4^\circ \downarrow$ (measure 48); 박 대고 has $4^\circ \downarrow$ (measure 48); 장구 has $4^\circ \downarrow$ (measure 48); and 대아쟁 has $5^\circ \downarrow$ (measure 48). The score also includes a mf dynamic marking in measure 46.

46마디 피리와 Solo대금과 해금은 두 번째 박에서 동시에 A b 음정으로 만나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아지도록 한다. Solo대금은 E b 으로 지속하다가 4도 도약하고, 해금은 41-44마디의 대금과 같이 4도 도약+2도 하향, 피리는 이에 조금 더 변화하여 4도 하향+3도 도약의 진행으로 만나는데, 이를 기점으로 전체 악기는 4도 하향+2도 도약 및 2도 도약+5도 하향, 3도 도약+4도 하향하는 등 종전과 조금 달라진 모양의 음 진행을 보인다.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아지는 이 효과는 B 단락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46마디에서 여러 악기가 한 번에 만나는 것은 A의 클라이막스인 이 부분의 소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B의 중율효과를 미리 제시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51-60마디

41마디부터 50마디까지 나타났던 도약과 하향을 엮은 형태의 진행이 지나고, A단락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4도 및 5도 도약이나 하향의 진행으로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구간이다.

<악보 20> A단락 51-6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the A-phrase (measures 51-60)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instruments are Solo Daegu, So-gum, Daegu, Piri, Haegum, Pak-daego, Janggu, and Daegajeng.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p* (piano). Fingerings and breathings are indicated by numbers and arrows (e.g., 5°↓, 4°↑). Measure numbers 51 through 60 are clearly marked at the beginning of each staff line.

꾸밈음으로 52마디에 등장하는 소금은 B♭-F로 4도 하향한 후 18박을 끌며 다른 악기들보다 먼저 자연스레 사라지며,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악기는 A의 마지막 Phrase인 55-60마디에 걸쳐 종지를 위해 도약 및 하향을 반복한다. 대금을 제외한 피리와 해금, 대아쟁

은 모두 E \flat 음정으로 종지하며, 대금은 E \flat -A \flat -B \flat 으로 진행해 E \flat 으로 종지한다.

작곡가가 A단락의 종지에서 국악적 선율의 느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정악곡에서 볼 수 있는 仲(A \flat)에서 黃(E \flat)으로의 하행종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B단락의 선율 진행 및 특징 선율 분석

B단락은 61-140마디까지로 총 80마디이다. 빠르기는 A단락에 비해 조금 빨라진 $J=ca.70$ 이고, 박자는 변화 없이 동일하게 4+3+5+3+4/4이다. 전체 악곡을 도입-전개-마무리로 볼 때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으로, 세 단락 중 가장 길고, 평균 음역대가 가장 높으며, 16분 음표의 등장으로 리드미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A에서는 4도와 5도의 도약 및 하향이 선율의 주를 이루었다면, B단락은 2도 진행이나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아지는 음향 효과가 자주 사용된다. ff 등 A단락에 비해 강한 셈여림표가 사용되어 곡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단락이다. Solo대금의 주선율을 관현악이 받쳐주어 호모포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61-70마디

A와 마찬가지로 B단락에서도 4도나 5도의 도약이 사용되지만, 도약의 빈도수와 지속음의 비율이 현저히 적어져 상대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연주되며, 2도 상향 및 하향의 진행이 많아진다. 이는 B의 도입부에서부터 드러난다.

<악보 21> B단락 61-66마디

The musical score for B-measure 61-66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are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and 대아쟁. The Solo 대금 part begins with a tempo marking of ca. 70. The score shows the melodic lines for each instrument across measures 61 to 66. The Solo 대금 part features a complex melodic line with various ornaments. The 장구 part has a rhythmic pattern. The other instruments are mostly silent or have simple accompaniment.

해금 및 대금이 연주를 시작한 후 Solo대금이 출현한 A단락에 반해, B단락에서는 Solo대금과 장구의 연주로 시작한다. 장구는 마치산조 연주 시에 첫 장단의 첫 박을 치지 않는 것처럼, Solo대금이 제시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박을 듣고 난 후 세 번째 박에 등장한다. 이후 장구는 A단락의 40마디 이후 장구 장단과 유사한 패턴으로 지속되는데, 기본 형태는 변하지 않으나 장단 내에서 박을 세분화하여 발전하는 형태로 연주한다.

A단락에서 Solo대금이 첫 출현한 16마디에서는 Solo대금이 F음으로 12박을 지속했지만, B의 첫 마디에서 Solo 대금이 F와 E \flat 의 2도 간격의 두 음정을 반복하여 도입부에 긴장감을 준다. 첫 음인 F는 한 박, 두 번째 음정인 E \flat 은 두 박 반을 지속한 후, F-E 진행을 반복할 때는 16분음표로 쪼개 연주하고, 다음 마디인 62마디에서 다시 F와 E \flat 의 진행을 재 반복하여 한 박씩 연주한 후 4도 도약하며 시김새를 붙여 A \flat 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2도 진행을 반복하는 이 패턴이 B단락의 모티브가 된다. 63마디에서는 당김음을 사용해 B \flat 에 악센트를 주어 C-B \flat 로 진행하며, 64마디와 65마디에서 C-B

b 진행을 반복한다. C-B \flat 의 반복 진행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A \flat -B \flat 의 2도 진행은 다음 각(Phrase)인 66마디에서 당김음을 사용해 B \flat -A \flat -B \flat 를 8분음표-4분음표-8분음표로 확대 진행된다.

<악보 22> B단락 66-70마디

67마디의 Solo대금은 16분음표의 4연음으로 첫 박을 빠르게 연주한 후 5도 도약해 C에 도달한다. 68마디에서는 C-B \flat -A \flat 세 음정을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사용하여 연주한 뒤, 3박을 지속하는 B \flat 에 도착할 때에는 악센트를 주어 연주한다. 이후 69마디에서 Solo대금은 B \flat -C-F-B \flat -A \flat 로 진행하는데, 선율 진행의 도착음인 A \flat 에서 대금과 옥타브 차이로 동시에 만나 A단락의 46마디에서 나타났던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여 A \flat 음정으로 집중되는 음향효과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66-70마디에서 Solo대금의 중심음을 대금이 연주해 Solo대금의 소리를 강하게 들리도록 받쳐주며, 해금과 대아쟁은 옥타브 간격의 같은 음을 박자의 차이를 두어 연주한다.

70마디에서는 61-69마디에서 자주 사용된 당김음과 2도 진행을 반복하며 다음 각으로 넘어간다.

2) 71-80마디

<악보 23> B단락 71-80마디

71 Solo 대금

71 소금

71 대금

71 피리

71 해금

71 박

71 대고

71 장구

71 대아쟁

76 Solo 대금

76 소금

76 대금

76 피리

76 해금

76 박

76 대고

76 장구

76 대아쟁

71-80마디는 해금과 소금, 피리가 순차적으로 등장해 음향적으로 풍성해지는 구간이다. Cadenza가 없는 <대금협주곡 1번>에서 약 10마디 동안 대금, 대아쟁의 음향적 도움을 받아 박을 잘게 쪼개며 연주하던 Solo대금은 71마디부터는 관현악과 호흡을 맞추어간다.

73마디의 둘째 박에서 Solo대금과 관현악대금이 옥타브 간격의 C 음정으로 동시에 만나고, 다섯 번째 박에서는 소금과 같은 옥타브의 C 음으로 동시에 만나 소리가 순간적으로 모이도록 하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72마디 소금은 시김새를 사용해 등장한다.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이는 73마디의 두 번째 박에 장구는 ‘드르닥’으로 악센트를 주고, 대고는 한 번 더 북을 울려 해당 박을 강조한다. 73마디의 다섯 박 중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박에 소리가 모이는데, Solo대금은 세 번째 박인 B \flat 에 악센트를 주어 연주해 소리가 분산되지 않도록 잡아준다.

이후 74마디에서는 Solo대금이 <대금협주곡 1번>의 최고음인 E \flat 음을 꾸밈음으로 사용해, 해당 음정이 이후 사용될 것을 암시한다. 멜로디컬하게 연주하는 Solo대금을 받쳐주기 위해 소금과 대금, 해금, 대아쟁은 74마디부터 피리가 등장하기 전인 77마디까지 C-F-E \flat 의 세 음을 연음형식을 사용하며 길게 지속한다. 피리까지 등장해 전 파트가 함께 연주하는 80마디에서는 피리를 제외한 모든 악기가 F 음정으로 만나는데, 이 때 Solo대금과 소금은 다시 한 번 같은 박에 F로 만나 소리가 모이는 것이 집중되도록 하며 관현악 대금은 B \flat 을 지속하는 피리의 음을 따 B \flat 음을 꾸밈음으로 사용한 후 E \flat 을 거쳐 F음으로 도달한다. 전 파트가 음을 지속하는 80마디의 끝에서 Solo대금이 C 음정에 악센트를 주어 연주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된다.

3) 81-90마디

B단락에서 처음으로 썸머림표가 등장하는 구간이다. 61-80마디까지 Solo대금을 관현악단이 받쳐주며 연주했다면, 81마디 이후로는 각자 제 목소리를 내어 경쟁과 협력 두 가지 역할을 오가는 구간이다.

<악보 24> B단락 81-8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81-85 is written for eight instruments: Solo Daegu, So-daegu, Daegu, Piri, Haegu, Bb-daegu, Ganggu, and Daegaeng.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b and Eb). Measures 81-83 show a complex texture with Solo Daegu playing a melodic line, while other instruments provide harmonic support. Measures 84-85 feature a more active Solo Daegu part, with other instruments playing sustained notes or short melodic fragments. Dynamics like *f* (forte) and *mf* (mezzo-forte) are indicated for several parts.

80마디 마지막 박부터 81마디까지 지속적으로 C음을 유지하던 Solo대금의 소리를 뚫고 피리와 해금이 *f*의 강세로 연주한다. 이 때 소리에 힘을 실기 위해 피리는 B \flat 에서 E \flat 으로 4도 도약하고, 해금은 F에서 C로 5도 도약한다. 피리와 해금의 도약이 끝난 직후 대금은 6도를 도약해 E \flat 에서 C에 도달하여 4박 이상 지속한다. 이 때 Solo대금은 대금과 2도간격의 음인 B \flat 과, 동일음인 C음을 반복하며 연주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84마디부터 90마디까지 Solo대금과 대금, 해금, 피리는 각기 다른 박에 1박 이상의 지속음+♪+♩의 조합을 가진 리듬꼴을 주고받으며 연주하여 84마디에서는 Solo대금이, 85마디에서는 대금과 Solo대금과 해금이 순차적으로 차례를 넘겨받는다.

<악보 25> B단락 86-90마디

앞서 지속음+♪+♩의 조합의 리듬꼴을 주고받은 것에 이어 87마디에서는 피리가, 88마디에서는 다시 Solo대금이, 90마디에서는 대금이 넘겨받아 연주한다. 이 때 음정은 E♭, F, A♭ 세 음정이 사용된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박자와 음정을 가진 소리들이 불규칙적으로 등장해 음향적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두 각(Phrase) 동안 아쟁을 제외한 모든 파트가 f, mf의 썸여림표를 사용하여 리드미컬하게 연주해 곡의 절정에 다다른 것을 인지하게 되는 구간이다.

4) 91-100마디

B단락의 절정 부분이자 곡 전체에서도 절정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일시적으로 소리가 모아지는 효과가 세 번 등장하며, ff의 썸여림이 사용된다. 81-90마디에서 대부분의 파트가 빠른 음진행 및 주요 리듬꼴(1박 이상의 지속음+♪+♩)을 사용한 데 반해, 썸여림 ff와 최고음 E♭이 사용되는 91-100마디의 구간에서는 Solo대금이 주선율을, 해금이 서브선율을 연주하며, 타 파트는 대체적으로 지속음을 사용하여 Solo대금과 해금의 선율을 받쳐주는 형태로 연주된다.

<악보 26> B단락 91-95마디

The musical score is for measures 91-95 of the B-measure. It features eight staves: Solo 대금 (Solo Daegu), 소금 (So-daegu), 대금 (Daegu), 피리 (Piri), 해금 (Haegu), 박 대고 (Bap-daegu), 장구 (Ganggu), and 대아쟁 (Daeyang).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ff* (fortissimo) and *f* (forte) for measures 91-93, and *mf* (mezzo-forte) for measures 94-95. The Solo 대금 staff has a box around measures 92-93. The 박 대고 staff has a box around measure 93. The 장구 staff has a box around measure 93. The 대아쟁 staff has a box around measure 93.

*ff*는 해당 Phrase의 첫 마디인 91마디에 Solo대금과 피리, 해금파트에서 사용된다. 91마디 두 번째 박에 Solo대금은 최고음인 E \flat 을 세 박 이상 지속하는데, 이 때 소금은 Solo대금과 같은 음정을, 피리는 두 옥타브 간격의 같은 음인 E \flat 을, 대금과 대아쟁은 옥타브 간격을 두고 B \flat 을, 해금은 첫 박에서 B \flat 을 낸 후 Solo대금을 따라 E \flat 으로 도약하며 *ff*로 세계 소리를 내 Solo대금-소금-대금-해금-피리-대아쟁이 윗 성부부터 차례대로 E \flat -E \flat -B \flat -(B \flat →E \flat)-E \flat -B \flat 의 음을 연주해 각기 완전8도, 완전4도, 완전5도의 간격을 가진 화성을 지속하여, 동시에 소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음향적으로 모든 소리가 모이게 된다. 93마디에서는 Solo대금이 ‘S(떠이어)’와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B \flat -C를 빠른 꾸밈음으로 사용하며 *f*의 강세로 연주한다. 이 때 피리와 해금도 함께 *f*로 강세를 주어 연주한다. 93마디의 Solo대금이 B \flat 에서 E \flat 으로 도약한 후 네 번째 박에서 C로 하향하는데, 이 때 Solo대금과 소금, 피리, 해금이 각각 C-F-E \flat -C의 음정을 동시에 내 순간적으로 소리를 모은다.

<악보 27> 96-10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96-100 is written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gu):** The top staff, featuring a melodic line with dynamic markings of *ff* (fortissimo) and *f* (forte).
- 소금 (Sogum):** The second staff, providing a harmonic accompaniment.
- 대금 (Daegu):** The third staff, playing a steady accompaniment.
- 피리 (Piri):** The fourth staff, playing a steady accompaniment.
- 해금 (Haegum):** The fifth staff, featuring a melodic line with dynamic markings of *ff* and *f*.
- 박대고 (Bakdaego):** The sixth staff, playing a steady accompaniment.
- 장구 (Janggu):** The seventh staff, playing a steady accompaniment.
- 대아쟁 (Daesajung):** The eighth staff, playing a steady accompaniment.

96마디 두 번째 박에서 Solo대금과 대금이 C음정을, 네 번째 박에서 해금과 *ff*의 세기로 연주하는 Solo대금이 B \flat 음정을 동시에 내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음향효과를 사용한다. 98마디에서 Solo대금과 해금은 B \flat 음정에 악센트를 주어 연주하는데, 이 때 Solo대금은 *f*, 해금은 *ff*의 셈여림으로 연주하며, 해금이 *ff*로 연주할 때 피리는 E \flat 에 *ff*의 셈여림으로 연주하여 셈여림과 음향효과를 사용해 곡의 절정을 표현한다.

5) 101-110마디

91-100마디의 절정이 지속되는 구간으로, 101-110마디의 두 각에서도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이는 효과와 다양한 셈여림이 사용된다. 이 구간에서는 Solo대금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소금과 대금, 피리, 해금, 대아쟁은 한 옥타브 내에서 약 3가지 음만을 지속음 위주로 단조롭게 연주하여 Solo대금의 연주를 음향적으로 받쳐주는 호모포니적 선율진행이 이루어진다.

<악보28> B단락101-110마디

101마디와 106마디, 즉 각 Phrase의 첫 마디에서 Solo대금과 대아쟁이 네 옥타브의 간격을 두고 동시에 B를 내고, 104마디에서는 소금과 대금이 같은 높이의 B \flat 을 내어 일시적으로 소리가 모이도록 한다. Solo대금이 앞에서 쓰인 ♩와 ♪를 조합한 박자와 싱코페이션의 사용 등으로 멜로디컬하게 연주를 하는 것에 맞추어, 대아쟁과 소금은 Solo대금의 주요음과 같은 음정으로 지속하는 방식으로 서

로 만나는 구조이다. 앞서 동시에 출현하는 음향효과를 낼 때는 서로 비슷한 박자를 가지고 있어 1박 내지 3박을 지속하는 구조였던 것에 반해, 101-106마디에서는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아질 때, 지속음의 시작 박에서 Solo대금과 만나는 구조인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멜로디컬하게 105마디까지를 연주했던 대금은 107마디에서 최고음 E♭을 f의 세기로 지속한 후, 104마디에서 만났던 소금과 함께 108마디에서부터 109마디까지 선율 및 박자를 맞추며 B♭에서 최고음 E♭로 함께 도약하는 진행을 보인다. 앞서 두 차례의 최고음 E♭은 강하게 연주하던 것에 반해 세 번째 출현하는 E♭은 mf의 세기로 연주해 클라이막스의 구간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과, 청황종의 음고를 가진 최고음 E♭이 재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암시한다.

6) 111-120마디

111-120마디에서는 101-110마디의 패턴과 유사하게 Solo대금을 제외한 모든 파트는 지속음을 주로 연주하는데, 각 악기의 중간 음역대에서 B♭, E♭, F 세 가지의 음을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Solo대금은 앞의 Phrase들과 유사하게 마디에 구애받지 않은 채로 당김음을 사용하거나 ♩와 ♪, ♫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박자로 연주한다. 음정은 합주군과 Solo대금이 서로의 주요음에 기반하여 연주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썸여림은 Solo대금과 대금에서만 mf와 f 두 가지가 나타난다.

<악보 29> B단락 111-11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11-115 is written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Solo 대금 (Solo Flute)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and *f*. The 소금 (Flute) and 대금 (Flute) parts provide harmonic support. The 피리 (Piri) and 해금 (Haegeum) parts play sustained notes. The 박대고 (Bukdaegu) and 장구 (Janggu) parts provide a steady rhythmic accompaniment. The 대아쟁 (Daearang) part plays a continuous bass line.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110마디부터 B \flat 을 지속하던 소금과 대아쟁의 음정에 맞추어 111마디의 첫 박은 Solo대금이 강하게 악센트를 주어 B \flat 을 2박 지속한 후 C-F의 음진행을 보이며 5도 하향한다. 대금과 해금은 F로 함께 시작하지만, 바로 다음 박에서 해금이 B \flat 으로 5도 하향해 서로 5도 간격으로 4박을 지속한 후, 112마디에서 해금과 동시에 E \flat 음을 연주한다.

111마디의 마지막 박에서는 Solo대금과 대금은 F로, 나머지 악기들은 모두 B \flat 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는 대금군과 비(非)대금군이 대립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5도 간격의 화성을 한 박 이상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4도와 5도, 옥타브 간격을 가진 화성을 지속하는 형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113마디 Solo대금과 소금은 B \flat , 해금은 F의 음정으로 또 한 번 소리가 동시에 모이게 되는데, 이 때 대아쟁과 대금은 F를, 피리는 B \flat 음정을 지속하고 있어 111마디와 동일한 음정으로 다시 한 번 화성을 만들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Solo대금은 *f*로 강하게 연주한다.

<악보 30> B단락 116-12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B-measure 116-120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staves are labeled on the left as follows: Solo 대금 (Solo Daegu), 소금 (So-gu), 대금 (Daegu), 피리 (Piri), 해금 (Haegu), 박 (Bap), 대고 (Daegu),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egu). The score is in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major or D-flat minor) and a 4/4 time signature. Measures 116 through 120 are indicated at the top of each staff. A box highlights measures 117 and 118, with a 'mf' dynamic marking. A 'f' dynamic marking is also present in measure 118.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slurs.

117마디의 마지막 네 번째 박에서 Solo대금과 소금, 대금, 피리가 A b 과 F 두 음정을 내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이도록 한다. A b의 음정은 101마디 이후 해금을 제외한 관현악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음정으로, 119마디 관현악단이 잠시 연주를 멈추기 위한 밑거름의 역할로 사용되었으며, 단지 거쳐가는 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 b의 음정을 낼 때 동시에 소리가 모이도록 하는 음향효과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119마디에서 소금과 해금, 대아쟁은 F, 대금과 피리는 C로 종지하며, 관현악 전 파트의 119마디 끝의 반 박에 쉼표를 배치해 120마디 Solo대금의 F지속음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7) 121-130마디

B단락이 종지하기 4 각(Phrase) 전 부분으로, Solo대금의 독주 1각과 해금독주 1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31> B단락 121-124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121-124, B-section. The score is for a solo flute and a woodwind ensemble. The solo flute part (Solo 대금) starts at measure 121 with a melodic line. The woodwind ensemble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대아쟁) enters at measure 122. The solo flute part continues with a melodic line, and the woodwind ensemble provides accompaniment.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mp and mf.

121마디 Solo대금의 C-F-E \flat -B \flat 의 진행을 피리가 두 박을 쉬 후
에 C-F-E \flat -B \flat 의 동일한 음 진행으로 연주하고, 바로 다음 선율
인 Solo대금의 C-B \flat -E \flat -B \flat 진행도 박자만 늘인 채 음정은 그대
로 모방한다. 피리가 Solo대금을 모방할 때 장구는 ‘드르닥’으로 선
율에 포인트를 준다.

<악보 32> B단락 124-130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124-130, B-section. The score is for a solo flute and a woodwind ensemble. The solo flute part (Solo 대금) starts at measure 124 with a melodic line. The woodwind ensemble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대아쟁) enters at measure 125. The solo flute part continues with a melodic line, and the woodwind ensemble provides accompaniment.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mp and mf.

Solo대금은 125마디에서 F 음정으로 종료하는데, 뒷꾸밈음으로 E b 음과 F음을 빠르게 연주하는 시김새를 붙여 종료한다. Solo대금이 연주를 종료할 무렵, 대금과 피리, 해금 간에도 모방이 이루어진다.

Solo대금이 재출현하는 130마디에서는 Solo대금의 출현음에 맞추어 소금과 피리가 F 음정으로 등장하고, 이를 신호로 전체 파트가 합주로 연주한다.

해당 단락의 종료 네 각(Phrase) 전에, 여러 각에 걸쳐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전반적인 선율 진행과 확연히 다른 모습의 진행 방식이 나타난다는 점은 A단락의 종료 전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A에서의 이 부분은 전개에 해당하는 B단락으로 가기 위해 A단락의 선율에 확대 및 변형해 복잡한 선율 진행으로 절정을 표현한 것인 반면에, B단락에서는 음악의 마무리인 C단락으로 가기 위해 강한 지속음으로 클라이막스를 표현했던 단락인 B단락에서 모방형식을 사용해 멜로딕한 선율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 131-140마디

<악보 33> B단락 131-136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31-140, B-phrase, is presented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instruments listed are Solo Daegu (Solo 대금), So-gum (소금), Daegu (대금), Pi-ri (피리), Hae-gum (해금), Bak-da-go (박대고), Gang-gu (강구), and Da-ea-gae (대아쟁).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major or D-flat minor). The Solo Daegu part begins in measure 131 with a melodic line marked *mf*, and continues through measure 140, marked *mp*. The other instruments provide accompaniment, with the Daegu and Pi-ri parts showing some melodic activity. The score is written on a grand staff with multiple staves for each instrument.

B단락이 종료되는 마지막 두 각에서도 앞선 두 각과 마찬가지로 모방형식이 사용된다. 130마디에서부터 이어지던 F에서 E♭의 음정으로 2도 하향하는 Solo대금선율은 피리가 모방하며, 133-135마디 Solo대금이 F-E♭-F-(E♭-F-)-A♭-B♭로 진행되는 선율의 구성음으로 해금이 박자를 확대하여 해금이 다섯 마디에 걸쳐 연주한다.

Solo대금을 모방하지 않는 소금과 대금, 대아쟁의 세 파트는 서로 유사하게 선율을 진행한다. 131-132마디에서는 소금과 대아쟁이 F-B♭로 진행하고, 이에 132마디에서 대금이 B♭의 음으로 합류해 지속한다. 133마디의 세 번째 박 이후 대금과 피리가 함께 C음을 연주하는데, 135마디에서 대아쟁이 대금의 C음정과 만난다. 대금과 함께 C로 지속하던 피리는 134마디부터 F음을 지속하던 소금을 따라 135마디에서 F음을 낸다.

<악보 34> B단락 136-14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36-140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jeom):**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136-139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and *mp*. Measure 140 features a sustained note with a *p* dynamic.
- 소금 (Sojeom):**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136-139 show a melodic line. Measure 140 features a sustained note with a *p* dynamic.
- 대금 (Daejeom):**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136-139 show a melodic line. Measure 140 features a sustained note with a *p* dynamic.
- 피리 (Piri):**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136-139 show a melodic line. Measure 140 features a sustained note with a *p* dynamic.
- 해금 (Haegum):**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136-139 show a melodic line. Measure 140 features a sustained note with a *p* dynamic.
- 박 대고 (Bage):**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136-139 show a melodic line. Measure 140 features a sustained note with a *p* dynamic.
- 장구 (Jang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136-139 show a melodic line. Measure 140 features a sustained note with a *p* dynamic.
- 대아쟁 (Daesang):** Bass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136-139 show a melodic line. Measure 140 features a sustained note with a *p* dynamic.

136마디 이후에는 각 파트의 진행에 맞추어 종지로 향한다. Solo대금은 E♭-A♭-E♭로 진행한 후 뒷꾸밈음으로 F-E♭를 빠르게 연주하는 시김새를 붙여 종지하는데, 이는 통일감을 주기 위해 125마디 해금Tutti에게 주선율을 넘겨주는 Solo대금의 마지막 선율과 유

사하다. 소금은 E-B \flat 로 5도 도약하고, 대금은 B \flat -E \flat 으로 4도 하향해 소금과 반대로 진행하며 마친다. 피리는 B \flat -C-E \flat 의 진행으로, 대아쟁은 E \flat 음만을 지속해서 중지해 Solo대금, 대금과 마찬가지로 E \flat 으로 중지하며, 해금은 F-A \flat -B \flat 의 진행으로 소금과 같이 E \flat 으로 중지한다. A단락의 종지와 동일하게 마지막 한 박에는 쉼표와 늘임표를 배치해 선율악기는 소리를 멈추고, 마지막 박에서는 ‘박’이 그 소리를 채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된다.

B단락은 A단락의 종지와 매우 유사하게 모든 선율악기가 E \flat 또는 B \flat 으로 중지하며, 박의 신호에 맞추어 마지막 단락인 C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이는 휘몰아치듯 진행되었던 B단락을 정악의 악지와 유사한 형태로 중지하도록 해 선율적으로 국악적 느낌을 느끼도록 환기시켜주며, 단락의 종료 시점에서 통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3. C단락의 선율 진행 및 특징 선율 분석

C단락은 도입-전개-마무리 중 마무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락이다. 마디수는 A와 동일하게 60마디로 구성되어있으며, 박자는 변화없이 동일하게 4+3+5+3+4/4, 빠르기는 세 단락 중 가장 느린 $J = ca.50$ 이다. 위의 단락별 출현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C단락에서 Solo대금은 다섯 개의 음만을 사용하며 지속음 위주로 연주하여, 주 선율의 역할보다는 다른 악기들과의 화합을 꾀하며 연주한다.

C단락은 A단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도약 및 하향이 등장하고, 장단의 진행도 유사해 A단락의 재현구로 보이며, 합주협주곡의 형식이 잘 드러나는 단락이다. 장구의 장단은 A의 41-60마디와 동일한 패턴으로 마디별로 박자를 짚어주는 역할을 하며 정악적으로 연주되고, 대고는 C의 두 번째 각(146-150마디)에서 첫 등장해 이후 매 각의 첫 박을 짚어주며 연주한다.

1) 141-150마디

C단락 도입부의 두 각(Phrase)은 합주협주곡 형식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간이다. C의 첫 마디인 141마디에서 Solo대금과 대금, 피리, 해금은 모두 솔로로 출현한다. A와 B단락의 종지부에서 사용한 음정과 동일한 E \flat 과 B \flat 으로만 연주를 하는데, 두 음을 한 박 내지 두 박의 간격을 두어 순차적으로 등장해 점차적으로 소리를 쌓아간다. 각자의 선율을 연주하던 관현악솔로들은 등장 순서와 역순인 해금-피리-대금의 차례로 한 박씩의 차이를 두며 146마디에서 Tutti합주로 전환하는데, 이 때 모든 파트는 해당 파트가 Solo로 첫 출현할 때의 음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옥타브 간격을 두고 E \flat 과 B \flat 음정을 지속한다.

C단락의 첫 각(Phrase)에서 E \flat -F 두 음정만을 연주하는 피리솔로를 제외한 관현악군 솔로와 Solo대금은 143마디의 하향을 기점으로 도약 및 하향 진행을 시작하며, 146마디 이후 하향과 도약을 거듭하는 피리를 포함해 모든 파트는 하향과 도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악보 35> C단락 141-146마디

Score for measures 141-146, C section. The score is for a woodwind and string ensemble. It shows the Solo parts for the Solo Trumpet (Solo 대금), Flute (소금), Oboe (대금), and Clarinet (피리), as well as the parts for the Percussion (박 대고) and String (강구) sections. The score includes measure numbers 141 through 146. The Solo parts are marked with 'Solo' and 'mf' (mezzo-forte). The Flute part has a '4°' interval marked. The Oboe part has a '4°' interval marked. The Clarinet part has a '4°' interval marked. The Percussion part has a '5°' interval marked. The String part has a '5°' interval marked. The score is in 2/4 time and features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악보 36> C단락 146-15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46-150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staves are labeled on the left as follows: Solo 대금 (Solo Flute), 소금 (Flute), 대금 (Flute), 피리 (Piri), 해금 (Haegeum), 박 (Pak), 대고 (Daego),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esajung).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Measure numbers 146, 147, 148, 149, and 150 are indicated above the staves. The Solo 대금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intervals marked as 5° down and 5° up. The Tutti parts (소금, 대금, 피리, 해금) enter in measure 147 with a 4° interval. The percussion parts (박, 대고, 장구, 대아쟁) provide a rhythmic accompaniment. Dynamics include *mp* (mezzo-piano) and *mf* (mezzo-forte).

Solo대금은 E \flat 에서 A \flat 으로 5도 하향한 후, 하향 도착음인 A \flat 에서 다시 5도 도약해 E \flat 음에 도착한다. 이후 147마디에서도 Solo대금은 F에서 B \flat 으로 5도 하향한 후, B \flat 에서 다시 F로 5도 도약해 하향-도약-하향-도약을 반복한다. C단락을 B \flat 의 같은 음정으로 시작했던 대금과 해금은 B \flat 에서 F로 4도 하향한 후 E \flat -B \flat 으로 5도 도약, 다시 B \flat -F로 4도 도약하는 동일한 음정진행을 보인다.

음정 및 형태, 박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와 같이 하향과 도약을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형태가 10마디에 걸쳐 나타난다. 이는 순차적으로 연주를 시작한 Solo악기의 등장 순서와 역순으로 Tutti연주를 시작해 서로 대칭이 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구간에서 도약과 하향이 대칭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장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파트가 Solo로 연주하는 독주악기군의 연주와 Tutti로 등장한 후의 합주악기군의 연주가 음향적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는 효과를 주어 해당 구간에서 합주협주곡 양식의 면모를 잘 느낄 수 있다.

2) 151-160마디

<악보 37> C단락 151-155마디

151 152 153 154 155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대아쟁

151마디부터 160마디의 두 각(Phrase)은 여러 악기가 동음진행의 형식으로 묶여 헤테로포니¹⁵⁾적 선율이 진행되는 구간이다. 151마디 Solo대금의 연주가 끝나는 음정인 C를 피리와 해금이 순차적으로 연주하고, 아쟁은 대금의 선율을 모방하여 대금선율의 주요음인 F, E♭를 네 마디에 걸쳐 지속한다.

15) 헤테로포니 - 이음성(異音性)을 뜻하지만 전혀 다른 선율을 복수성부(複數聲部)에 동시에 할당하는 좁은 뜻의 폴리포니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선율의 변형군(變形群)을 동시에 들려 주는 앙상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6.

<악보 38> C단락 154-16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54-160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gu):**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long note in measure 154, followed by a serie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a final measure with a rest.
- 소금 (So-gum):** Provides a rhythmic accompaniment with eighth and sixteenth notes, mirroring the Solo Daegu's melody.
- 대금 (Daegu):** Plays a similar melodic line to the Solo Daegu, with some variations in phrasing.
- 피리 (Piri):** Plays a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throughout the section.
- 해금 (Haegu):** Provides a rhythmic accompaniment with eighth and sixteenth notes.
- 박 대고 (Bap Daegu):** Plays a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 장구 (Janggu):** Plays a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 대아쟁 (Daegajung):** Plays a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rests,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dynamic markings like *mf* (mezzo-forte) and *8°* (octave down).

154마디부터 156마디까지의 Solo대금선율은 피리가 모방하여 154마디부터 158마디까지 확대하여 연주하며, 소금과 대금은 서로를 모방하여 154-158마디에 동일한 음진행을 보인다. 모방을 하지 않는 악기인 장구는 158마디에서 ‘드르닥’으로 이중꾸밈음을 사용하고, 대아쟁은 E \flat 에서 E \flat 으로 <대금협주곡 1번> 내에서 최초로 한 옥타브를 하향한다. 해금 또한 다른 악기와 독립적으로 선율을 진행하여, 이 구간에서 주선율은 해금이 맡게 된다.

3) 161-170마디

161-170마디에서는 소금과 대금, Solo대금의 등장 빈도수가 적어 피리와 해금이 주선율을 이루게 되는 구간이다.

<악보 39> C단락 161-165마디

앞서 159마디에서 B \flat (-C-B \flat)으로 겹꾸밈음을 사용해 연주를 멈추는 Solo대금을 모방해 163마디 대금도 B \flat (-C-B \flat)로 뒷꾸밈음을 사용하여 사라진다. 163마디에서 소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를 멈추기 때문에 피리와 해금, 대아쟁이 남아 선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세 파트는 Solo대금과 소금, 대금이 재등장하기 전 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주하기보다는 횡적인 선율진행을 보인다. 도약과 하행진행을 거듭하며 높낮이의 변화를 주며 연주하는 해금과 아쟁에 반해 피리는 E \flat 과 F의 음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악보 40> C단락 165-170마디

165 166 167 168 169 170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대아쟁

168마디에서 Solo대금과 소금, 대금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 때 대금과 소금은 피리의 음정인 E \flat 과 F의 두 음정을 사용하고, 대금은 168마디부터 C-B \flat 의 진행으로 연주하는 대아쟁의 선율을 모방하며 진행되어 C-B \flat 의 음진행을 보인다.

4) 171-180마디

<악보 41> C단락 171-175마디

171 172 173 174 175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대아쟁

앞서 168마디부터 170마디까지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171마디에서 180마디의 구간은 Solo대금과 소금이 결합되어 두 파트는 F-E \flat 를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유사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 대금과 피리, 해금, 대아쟁은 폴리포니¹⁶⁾적 형식으로 진행돼, 선율간의 유사성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 선율에서 발생되는 화성이 중점이 되는 진행형식을 보인다.

<악보 42> C단락 176-180마디

대금은 도약 없이 B \flat -C의 두 음을 위주로 연주하며, 피리는 176마디에서의 한 번의 도약 외에는 순차적인 진행을 보이며 연주한다.

16) 폴리포니 - 음악의 선율 유형을 나타내는 말. '폴리포니(polyphony)'는 '다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polys'와 'phonos'를 합성한 말로서, 여러개의 선율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적으로 결합되는 짜임새를 가리키는 말이다. 폴리포니는 결국 2성부 이상의 선율을 독립적이고 선적인 구성으로 다루는 선율 양식, 혹은 음악적 짜임새를 의미한다. 폴리포니는 2개 이상의 독립적 선율의 배합에 기초를 둔 대위법의 성립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양식이 된 것으로, 폴리포니의 음악을 대위법적 음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폴리포니는 유럽에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 현저하게 이루어졌다. 최신 시사상식 핵심 용어사전, 박문각, 박문각시사상식편집부, 2014

이 구간에서도 해금이 도약이나 하행, 그리고 ♩로 박을 쪼개며 연주하여 앞선 두 각과 마찬가지로 해금이 주선율을 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C단락에서는 Solo대금이 연주를 쉬는 경우가 잦는데, 178마디에서 연주를 멈출 때 E♭으로 지속한 후에 F-E♭의 겹꾸밈음을 사용해 125마디에서 제시되어 140마디, 159마디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종지한다.

5) 181-190마디

<대금협주곡 1번>이 종지를 향해 가는 구간이다. 앞서 A단락과 B단락에서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리듬꼴이나 음진행이 사용되었지만, C단락에서 이 부분은 곡의 완전한 종료를 향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C단락의 진행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진행된다.

<악보 46> 181-18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81-185 shows the following parts:

- Solo 대금 (Solo Oboe):** Measures 181-184 are silent, with a final note in measure 185.
- 소금 (Oboe):** Measures 181-184 are silent, with a final note in measure 185.
- 대금 (Clarinet):** Measures 181-184 are silent, with a final note in measure 185.
- 피리 (Bassoon):** Measures 181-184 are silent, with a final note in measure 185.
- 해금 (Horn):** Measures 181-184 are silent, with a final note in measure 185.
- 박대고 (Percussion):** Measures 181-184 are silent, with a final note in measure 185.
- 장구 (Cello/Double Bass):** Measures 181-184 are silent, with a final note in measure 185.

179마디 이후 약 6마디간 휴식한 후 Solo대금이 출현하는데, 각자

본인의 선율을 연주하던 피리와 해금이 Solo대금의 등장에 앞서 183마디의 마지막 박에서 옥타브 간격의 B \flat 으로 만난다. 이를 기점으로 모든 선율악기는 서로의 음정 진행을 모방하여 190마디까지 연주된다.

<악보 47> C단락 186-190마디

185마디 Solo대금이 E \flat -F의 겹꾸밈음을 붙여 E \flat 으로 등장할 때, 피리와 해금이 옥타브 간격의 E \flat 음으로 동시에 연주해 B에서 수차례 사용되었던,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이는 음향효과가 사용된다. 186마디에서 피리와 Solo대금이 C음으로 만나고, 187마디에서는 Solo대금과 해금이 F음으로 만난 후, 188마디 Solo대금과 해금이 동시에 E \flat 을 연주하면 피리가 189마디에서 E \flat 음으로 합류한다. 190마디에서는 Solo대금과 피리, 아쟁이 F음으로 만나며 해당 각이 마무리된다.

6) 191-200마디

전체 악곡이 종료되는 구간으로, 두 각에 걸쳐 악지를 위한 진행이 이루어진다.

<악보 48> C단락 191-195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191-195, C-measure. The score is for a string quartet with parts for Solo Violin,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 and Percussion. The Solo Violin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Viola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Double Bass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Percussion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score shows a melodic line in the Solo Violin part and a supporting line in the Double Bass part.

Solo대금은 B \flat -C-F-E \flat -B \flat -E \flat -F-E \flat 의 음진행을 보이는데, C-F의 진행을 연주할 때는 대아쟁이, B \flat -E \flat 의 진행으로 연주할 때는 대금과 피리가 Solo대금의 선율을 모방하여 연주한다.

<악보 49> C단락 195-200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195-200, C-measure. The score is for a string quartet with parts for Solo Violin,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 and Percussion. The Solo Violin part has dynamics *mp*, *p*, and *pp*. The Violin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Viola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Cello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Double Bass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Percussion part has dynamics *mp* and *p*. The score shows a melodic line in the Solo Violin part and a supporting line in the Double Bass part.

195마디 이후 피리는 Solo대금의 선율의 골격음과 동일한 진행으로 연주하며 E♭으로 종지한다. 191마디의 첫 박부터 B♭-F-B♭-C-F로 동일한 음진행을 하던 대금과 해금은 194마디의 세 번째 음을 기점으로 다른 선율 진행을 보인다. 대금은 F음정에서 4도 도약해 Solo대금과 피리가 연주하는 B♭음정으로 합류하고, 해금은 F에서 E♭음정으로 2도 하향한다. 대금과 해금은 198마디에서 A♭음정으로 만나 E♭음정으로 종지한다. 전 파트 모두 통틀어 점차 작아지며 pp의 셈여림으로 여운을 남기며 연주를 마친다.

A단락은 전체 파트가 E♭을 지속하는 가운데 관현악대금이 B♭을 지속하여 E♭(黃)-B♭(林) 두 음으로 나뉘어 종지하였고, B단락에서는 Solo대금과 대금, 피리, 대아쟁이 E♭을, 소금과 해금이 B♭을 연주하여 A단락과 마찬가지로 E♭(黃)-B♭(林) 두 음으로 나뉘어 종지하였다. 그러나 <대금협주곡 1번>이 완전히 종료되는 C단락의 마지막은 전 파트 모두 E♭(黃)을 지속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종지하였다. 또, A단락과 B단락에서는 마지막 한 박에 늘임표를 붙인 반면, C단락의 종지에서는 마지막 박에 ♭를 배치하고 이에 늘임표를 붙였으며, 마지막 박에 박을 쳐 모든 소리가 함께 여운이 남도록 배치하였다.

4. 소결

<대금협주곡 1번>의 단락별로 특징선율 및 선율 진행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A단락에서는 4도와 5도의 도약 및 하향 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A단락 내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41-50마디에서는 4도 도약 및 하행+2도 도약 및 하행의 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4도와 3도의 조합도 두 차례 나타났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B단락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이는 효과가 한 차례 사용되었다.

A단락과 C단락에 비해 리드미컬한 선율 진행을 보이는 B단락에서

는 2도 진행 및 순간적으로 소리가 모이는 음향 효과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악곡에서 Solo대금의 최고음이 B단락에서만 사용되었으며, B단락의 클라이막스 즉 <대금협주곡 1번>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91-110마디에서 최고음인 E \flat 과 함께 ff 및 f의 셈여림이 사용되었다. B단락의 특징선율이 A단락에서 드러났던 것과 같이, C단락에서 나타나는 파트 간 선율모방도 B단락의 81-90마디와 120마디 이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클라이막스의 전후에 C단락의 특징적 효과를 일부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율진행 및 마디수, 악곡의 형식 등으로 보았을 때 A단락의 재현구라 할 수 있는 C단락에서는 A단락에서 자주 나타났던 4도와 5도의 도약 및 하향 진행과 더불어 모방형식이 사용되었다. C단락의 도입부인 141-150마디에서는 도약진행이 눈에 띄게 많았으며, 151마디 이후에는 파트 간 모방형식이 사용되었다. 이 때 타 파트의 선율을 모방하지 않는 파트는 도약을 하는 형식으로 도약과 모방형식이 고르게 사용되었다. C단락은 전체 악곡이 종료되는 단락이기 때문에 A와 B단락과 비교했을 때 중간음역대의 다섯 음만이 사용되었으며, A단락의 시작을 맡은 해금이 주선율을 맡고 Solo대금이 지속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A, B단락의 종지에서는 여러 파트가 E \flat (黃)과 B \flat (林)으로 나뉘어 종지한 반면, 전체 악곡이 종료하는 C단락의 종지에서는 전체 파트가 E \flat 으로 종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E \flat 에 도달하기 위해 A \flat 에서 4도 하행하거나, B \flat 에서 E \flat 으로 4도 도약하는 등 정악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진행으로 종지하였다.

장구 장단은 전체 악곡에 걸쳐 기덕-궁의 갈라치는 형식이 사용되었다.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단락인 B단락에서 장구는 장단을 쪼개어 연주하였으며, A와 C단락에서는 각 Phrase의 첫 마디에서만 연주하던 대고는 B단락에서 셋째 마디의 중간 세 박을 채워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 단락이 종료될 때는 정악곡과 같이 박이 마지막 박을 치는 것을 신호로 하였다.

V. <대금협주곡 1번>의 화성 분석

작곡가 김승근은 동양 철학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화성체계를 구축하였다. 동양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화성체계란 화성적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서양음악의 화성체계와 구분되어 음(音)이 가지고 있는 음(陰)과 양(陽)의 성질로서 악곡을 진행하는 음정 간 음양의 조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이를 본인의 작품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동양철학에서는 모든 음악이 도(道)를 표현하고 있으며 도교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는 음양의 조화를 이룬 도(道)의 상태이다. 전통음악에서도 양률과 음려로 음을 구분한 점이 나 혹은 제례악에서의 악대가 등가와 현가로 나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동양철학에서 받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음악의 완벽한 화음체계는 양과 음의 동일한 배분이라고 믿고, 음과 양의 조화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새로운 화성체계를 연구하였다.”¹⁷⁾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구분되고 이 음과 양의 조화가 완벽한 도의 경지를 이룬다는 도교사상은 한국 전통음악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 전통음악의 12음계인 12율려는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홀수 번째 음을 양률(陽律), 짝수 번째 음을 음려(陰呂)라고 하였으며, 양률은 왼쪽으로 돌아 음려와 합하고 음려는 오른쪽으로 돌아 양률과 합하는 음양합성(陰陽合聲)을 근간으로 한다. 김승근은 도교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도’(道)와 ‘음양’ 사상을 음악에 활용하였고, 그중 ‘음양합성’(陰陽合聲)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성체계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음양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전통음악의

17) 원우가, 동양철학사상을 활용한 작곡기법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학위논문, 2017.2, P.104

음계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합성’(合聲)을 근간으로 하여 양률과 음률을 동등하게 결합함으로써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독자적인 화성체계를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¹⁸⁾

<대금협주곡 1번>의 화성체계에는 작곡가의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곡을 분석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선율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화성체계를 음양의 균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곡은 B단락에서 소리가 순간적으로 모이는 일부 선율을 제외하고 동시에 선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파트는 서로 맞물려서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연음형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화성진행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파트에 맞물려서 서서히 출현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동시에 우연히 마주치는 음정의 음양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보다는 단락 별, 프레이즈(Phrase)별로 구분하여 각 파트의 선율 진행에 따라 분석하고, 프레이즈 별 각 파트의 주요음정으로 화성을 만들고, 해당 음정을 음과 양의 성질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악적 분위기로 작곡된 <대금협주곡 1번>의 특성상 2도 혹은 4도 간격의 비화성음이 사용되어 화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화성으로 구분하겠다.

18) 원우가, 동양철학사상을 활용한 작곡기법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학위논문, 2017.2, P.104

1. A단락의 화성 및 음양 성질 분석

1) 1-10마디

<악보50> A단락 1-5마디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seven instruments: Solo Daegu (Solo 대금), Soogu (소금), Daegu (대금), Piri (피리), Haegu (해금), Bakk (박), and Janggu (장구).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b and Eb),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s divided into five measures, numbered 1 to 5 at the top. The Solo Daegu part has a 'Solo' marking above measure 3. The Haegu part has 'mp' (mezzo-piano) markings below measures 1 and 2. The Bakk and Janggu parts are marked with 'I'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measure. The Daegu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slurs and ties across measures 2, 3, and 4.

솔로해금의 선율로 시작되는 악곡의 첫 각(Phrase)의 Solo해금의 윗성부는 E \flat , A \flat , B \flat 의 세 주요음정이 사용되어 화성적으로 I도에 가깝다. I도화음은 본래 A \flat , C, E \flat 의 세 음정이지만 C음정이 사용되지 않고 음의 성질을 가진 비화성음인 B \flat 음정이 사용되었다. 율명 黃에 가까운 E \flat 은 양, 율명 林음정에 가까운 A \flat 과 율명 南음정에 가까운 B \flat 은 음의 성질로, 해당 Phrase의 해금은 음의 성질을 가진 I도화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51> A단락 6-1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6-10 of section A is written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staves are arranged vertically from top to bottom: Solo 대금 (Solo Jangjuk), 소금 (Soguk), 대금 (Jangjuk), 피리 (Piri), 해금 (Haegeum), 박대고 (Bakdaego),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esajung). The key signature consists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Measures 6-10 show various melodic lines with dynamics like *mp* and *mf*.

두 번째 각에서 솔로해금 윗성부의 주요음은 F, B \flat , C의 세 음정으로 m1도 화음으로 볼 수 있다. F, A \flat , C음정이 본래 구성음이지만, 여기에서는 A \flat 음정을 대신해 B \flat 의 음정이 비화성음으로 사용되었다. F음정은 양의 성질을 가진 율명 太에 가까우며, B \flat 과 C는 각각 음의 성질을 가진 林과 南에 가까워 6-10마디에 해당하는 두 번째 각의 해금 윗성부의 화음은 음의 성질을 가진 m1도로 볼 수 있다. 두 각을 거치는 동안 솔로해금의 아랫성부는 F와 E \flat 의 두 음을 반복하는데, 이 두 음정은 각각 양의 성질을 가진 太와 黃에 가까운 음으로, 윗성부가 음의 성질을 가진 화음을 지속할 때 양의 성질의 음으로 지속해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진행된다.

첫 번째 각(Phrase)의 두 번째 마디부터 출현하는 솔로대금 또한 해금과 마찬가지로 두 성부로 나뉘어 연주하는데, 이 때 윗성부는 E \flat 과 F의 두 음정, 즉 양의 성질을 가진 黃과 太로 연주되고, 아랫성부는 B \flat 과 C, 즉 음의 성질을 가진 林과 南으로 지속하여 연주되어 솔로대금도 해금과 마찬가지로 음양의 조화로 악곡이 진행된다.

2) 11-20마디

<악보 52> A단락 11-2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1-20, A-phrase,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11-15) and the second system (measures 16-20) show the following parts:

- Solo 대금 (Solo Violin):** Measures 11-15 are mostly rests. Measures 16-20 feature a melodic line starting with a *mp* dynamic marking.
- 소금 (Violin):** Measures 11-15 have rests. Measures 16-20 play a sustained harmonic accompaniment.
- 대금 (Viola):** Measures 11-15 have rests. Measures 16-20 play a sustained harmonic accompaniment.
- 피리 (Cello):** Measures 11-15 have rests. Measures 16-20 play a sustained harmonic accompaniment.
- 해금 (Double Bass):** Measures 11-15 have rests. Measures 16-20 play a sustained harmonic accompaniment.
- 박대고 (Snare Drum):** Measures 11-15 have rests. Measures 16-20 play a steady rhythmic pattern.
- 장구 (Timpani):** Measures 11-15 have rests. Measures 16-20 play a steady rhythmic pattern.
- 대아쟁 (Double Bass):** Measures 11-15 have rests. Measures 16-20 play a steady rhythmic pattern.

11-20마디에서는 대금과 해금이 모두 Tutti로 한 선율을 연주하고, 대아쟁과 Solo대금, 소금이 출현하는 구간이다. 두 각을 한 덩어

리로 보았을 때, Solo대금은 양의 성질인 太와 黃에 해당하는 F와 E♭의 음정을 사용해 양으로 진행하며, 20마디의 끝에서 출현하는 소금은 음의 성질인 南에 해당하는 C음으로 출현한다. 대금은 11-13마디까지는 양의 성질인 太(F)와 黃(E♭)의 두 음정으로, 14-20마디 첫 박까지는 음의 성질인 南(C)과 林(B♭)의 두 음정으로, 20마디 두 번째 박부터는 양의 성질인 太(F)로 연주하여 두 각에 걸쳐 음과 양을 번갈아가며 연주한다. Solo대금과 소금은 출현음이 적어 화성의 성질을 구별할 수 없으며, 대금은 출현 음정으로 보았을 때 서로 다른 화성과 겹치는 음정이 많기 때문에 화성 구분을 할 수 없다.

해금은 한 각씩 구분했을 때에는 11-15마디에서는 음의 성질을 가진 仲(A♭), 林(B♭), 南(C)의 세 음정으로, 16-20마디에서는 양의 성질을 가진 太 음정으로만 연주해 음과 양이 번갈아가며 한 각씩 연주되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두 각의 해금선율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는 주요음인 F(太), A♭(仲), B♭(林), C(南)의 네 음정으로 화성을 구성했을 때는 F, A♭, C로 이루어진 m1도로 볼 수 있으며, F음정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A♭, B♭, C의 세 음정이 음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음의 성질을 가진 m1도로 볼 수 있다. 아쟁은 해금과 반대로 11-15마디에서는 양의 성질인 黃(E♭)과 太(F)의 두 음정으로만 연주하며, 16-20마디에서는 음의 성질인 林으로만 연주해 각각 양과 음의 성질로 한 각씩 번갈아가며 연주해 음양의 조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1-20마디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아쟁과 해금이 같은 구조로 연주되며, 대금은 음과 양을 번갈아가며 연주하는데, 양의 성질을 가진 Solo대금이 출현할 때는 음으로, 소금이 음으로 출현하기 직전에는 양의 성질로 연주하여 해당 두 각에서도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3) 21-30마디

21마디부터 A단락의 종지가 이루어지기 전인 50마디까지 약 6각의 구간은 A단락 내의 전개부로, 각 단락별로 볼 때 음양이 한 쪽으로 치우쳐 진행되지만 6각을 함께 보았을 때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 21-25마디에서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26-40마디는 점차적으로 양에 치우치다가, 41-50 마디에서는 음에 가깝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도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각씩 끊어서 분석하겠다.

<악보 53> A단락 21-2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A-Section measures 21-25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jeom):** Melodic line starting at measure 21, marked *mp*.
- 소금 (Sogum):** Harmonic support, playing a steady melody.
- 대금 (Daejeom):** Harmonic support, playing a steady melody.
- 피리 (Piri):** Rests throughout the measures.
- 해금 (Haegum):** Rests throughout the measures.
- 박대고 (Bakdaego):** Rhythmic accompaniment, playing a steady pattern.
- 장구 (Janggu):** Rhythmic accompaniment, playing a steady pattern.
- 대아쟁 (Daearang):** Rhythmic accompaniment, playing a steady pattern.

21-30마디의 구간에서는 피리를 제외한 전체 악기가 출현하는데, 다른 파트는 첫 마디부터 출현하는 반면 해금은 27마디부터 연주한다. 21-25마디에서 Solo대금은 F(太), A^b(仲), B^b(林) 세 중심음으로 연주되어 음의 성질인 m1도이며, 대금의 중심음은 E^b(黃), F(太), B^b(林)로 비화성음 F가 사용된 양의 성질의 V도진행이다. 소금과 대아쟁은 음양이 조화를 갖추는데, 대아쟁은 E^b(黃)과 B^b

(林)의 두 음정으로 진행하고, 소금은 E \flat (黃), F(太), A \flat (仲), B \flat (林), C(南) 다섯 음정이 고루 출현하기 때문이다. 21-25마디 소금의 출현음계를 화성으로 구분지을 경우에는 F, A \flat , C 세 음으로 구성되는 m1도이며, 이 경우에 음의 성질로 구분할 수 있다.

<악보 54> A단락 26-3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26-30 is written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26-3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and *f*.
- 소금 (So-gum):**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26-3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and *f*.
- 대금 (Dae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26-3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and *f*.
- 피리 (Piri):**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26-3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and *f*.
- 해금 (Hae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26-3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p*, *mp*, and *tutti*.
- 박 대고 (Paj Dae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26-3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p*, *mp*, and *tutti*.
- 장구 (Jang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26-3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p*, *mp*, and *tutti*.
- 대아쟁 (Daegajeng):** Bass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26-3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p*, *mp*, and *tutti*.

26-30마디에서는 성질이 뒤바껴 음의 성질로 구분할 수 있는 Solo 대금과 소금은 양으로, 양의 성질이었던 대금은 음으로 바뀐다. 27마디에서 등장하는 해금과 음양의 조화를 갖추었던 대아쟁은 양으로 연주된다. Solo대금과 대아쟁의 중심음은 E \flat (黃), F(太), B \flat (林)으로 비화성음 F가 사용된 양의 V도 진행이며, 대금은 F(太), A \flat (仲), B \flat (林)의 중심음으로 음의 m1도이다. 소금과 해금은 E \flat (黃)과 F(太) 두 음정으로만 출현해 양으로 연주된다.

이후 편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계이름과 율명을 함께 표기하겠다.

4) 31-40마디

<악보 55> A단락 31-3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31-35, A-phrase, is presented across eight staves. The staves are labeled on the left: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and 대아쟁. The measures are numbered 31 through 35 above the staves. The Solo 대금 staff includes a *mp* dynamic marking. The score features various musical notations, including notes, rests, and articulation marks, indicating the melodic and rhythmic development of the phrase.

31-35마디 Phrase의 초반부에 출현하는 악기는 Solo대금과 대금, 해금이며, 소금과 대아쟁은 35마디 경에 양인 E \flat 의 같은 음으로 출현한다. Solo대금은 음으로, 대금과 해금은 양으로 출현한다. Solo대금의 중심음은 A \flat , B \flat , C, E \flat 으로 양의 I도 진행이며, 대금과 해금은 E \flat , F, B \flat 의 동일한 중심음으로 연주해 양의 V도 진행이다. 해금은 두 파트로 나뉘어 연주하지만 중심음은 같으며, 음양의 조화를 맞춘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34마디 마지막 박과 35마디 두 번째 박에서 소금과 대아쟁이 E \flat 으로 출현하여 양의 성질이 강해진다.

<악보 56> A단락 36-4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36-40 is written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36-4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f*, and *mf*.
- 소금 (Soj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36-4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f*, and *mf*.
- 대금 (Dae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36-4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f*, and *mf*.
- 피리 (Piri):**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36-4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f*, and *mf*.
- 해금 (Hae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36-4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f*, and *mf*.
- 박대고 (Bakk):**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36-4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f*, and *mf*.
- 장구 (Janggu):** Treble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36-4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f*, and *mf*.
- 대아쟁 (Daegajung):** Bass clef, key of B-flat major. Measures 36-40 show a melodic line with dynamics *mf*, *f*, and *mf*.

36-40마디에서는 <대금협주곡 1번>에서 주선율을 담당하는 악기인 Solo대금과 해금이 음의 성질로, 대금, 피리, 대아쟁은 양으로 연주하여 35마디에 이어서 양에 치우친 채로 연주된다. Solo대금과 해금은 F, A \flat , B \flat 의 동일한 중심음으로 연주해 비화성음 B \flat 이 사용된 음의 m1도 진행이며, 대금과 대아쟁은 E \flat , F, B \flat 의 동일한 중심음으로, 비화성음 F가 사용된 양의 V도 진행이다. 피리는 C, E \flat , F의 세 음으로 연주하여 양의 성질로 연주하지만, 화성을 규정할 수 없다. 34마디에서 E \flat 으로 등장했던 소금은 36마디 이후에는 B \flat 과 F를 중점적으로 연주해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한다.

5) 41-50마디

41-45마디에서는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46-50마디에서는 음에 조금 치우쳐 36-40마디 양에 치중되었던 것에 조화를 이룬다.

<악보 57> A단락 41-45마디

41-45마디에서 양에 해당하는 파트는 Solo대금과 피리, 대아쟁이며, 음에 해당하는 파트는 소금과 대금, 해금이다. Solo대금의 중심음은 C, E \flat , F로 화성을 규정할 수 없으며, 피리와 대아쟁은 동일하게 E \flat , F, B \flat 의 중심음을 사용해 V도 진행을 보인다. 음으로 연주하는 소금과 대금은 B \flat 의 중심음으로 연주하며, 해금은 F, B \flat , C의 중심음으로 비화성음 B \flat 이 사용된 m1도로 진행된다.

<악보 58> A단락 46-50마디

46-50마디에서는 대금과 피리, 대아쟁의 중심음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연주되며, 이들을 제외한 대금과 해금은 음의 성질로 연주된다. 대금과 피리의 중심음은 C, E \flat , F, B \flat 으로 화성은 V도에 가깝다. 대아쟁은 B \flat , E \flat 두 음정만을 사용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었다. 대금은 A \flat , B \flat , C의 세 음을 중심음으로 사용하여 화성을 구분지을 수 없으나 해금은 F음을 추가하여 F, A \flat , B \flat , C의 중심음으로 연주해 ml도의 진행을 보인다.

6) 51-60마디

A단락의 악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당 구간은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며 단락이 마무리된다. <대금협주곡 1번>에서 타 파트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소금과 대아쟁은 앞선 두 각(Phrase)과 마찬가지로 지속음을 위주로 연주하며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한다. 소금은 B \flat -F 지속음의 진행으로 두 각에 걸쳐 조화를 이루는데, 대아쟁은 51-55마디에서는 F와 B \flat , 56-60마디에서는 E \flat 과 B \flat 을 사용하여 연주해 각 Phrase별로 조화를 맞추어 진행된다.

<악보 59> A단락 51-5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51-55 shows the following parts:

- Solo 대금:** Melodic line with measures 51-55, including grace notes.
- 소금:** Sustained notes in measures 51-55.
- 대금:** Sustained notes in measures 51-55.
- 피리:**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in measures 51-55.
- 해금:** Sustained B \flat -F dyad in measures 51-55.
- 박대고:** Rhythmic strokes in measures 51-55.
- 장구:** Rhythmic strokes in measures 51-55.
- 대아쟁:** Sustained F-B \flat dyad in measures 51-55.

51-55마디에서 양에 해당하는 파트는 소금과 해금, 음에 해당하는 파트는 대금과 피리이다. 양으로 연주하는 Solo대금과 해금은 E \flat , F, B \flat 의 동일한 중심음으로 연주되어 비화성음 F가 사용된 V도 진행을 보인다. 음으로 연주하는 대금과 피리는 공통적으로 B \flat 과 C를 사용하는데, 피리는 이에 F가 추가되어 F, B \flat , C의 중심음으로 비화성음 B \flat 이 사용된 m1도의 진행을 보인다.

<악보 60> A단락 56-6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56-60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staves are labeled on the left as follows: Solo 대금 (Solo Daegu), 소금 (Sojeom), 대금 (Daegu), 피리 (Piri), 해금 (Haegum), 박 대고 (Bap Daejo),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esaeng).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 \flat , E \flat , A \flat). Measure numbers 56, 57, 58, 59, and 60 are indicated above the staves. The Solo Daegu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crescendo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in measure 60. The Sojeom part has a sustained note in measure 56, followed by a melodic line. The Daegu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a crescendo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in measure 60. The Piri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a crescendo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in measure 60. The Haegum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a crescendo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in measure 60. The Bap Daejo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a crescendo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in measure 60. The Janggu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a crescendo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in measure 60. The Daesaeng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a crescendo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in measure 60.

56-60마디에서는 소금, 대아쟁과 더불어 Solo대금이 E \flat , A \flat 두 음정으로만 연주해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 이전 각(Phrase)에서 Solo대금과 함께 양으로 연주하던 해금은 음으로, 음으로 연주하던 피리는 양으로 연주하여 성질이 변화하지만 대금은 그대로 음으로 연주된다. 해금은 E \flat , A \flat , B \flat 의 진행으로 음의 I도 혹은 V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금은 해금의 중심음에서 E \flat 이 제외된 A \flat , B \flat 두 음정의 사용으로, 음으로 연주된다. 피리는 해금과 E \flat , B \flat 의 두 음이 겹치지만 이에 F가 추가되어 E \flat , F, B \flat 의 중심음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양의 V도로 해석된다.

2. B단락의 화성 및 음양 성질 분석

1) 61-70마디

<악보 61> B단락 61-6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B-measure 61-65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top staff, labeled 'Solo 대금' (Solo Daegu), contains the melodic line with a tempo marking of $\text{♩} = \text{ca. } 70$. The subsequent staves are for '소금' (So-daegu), '대금' (Daegu), '파리' (Paeri), '해금' (Haegu), '박' (Bap), '대고' (Daegu),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egajung). The score is divided into measures 61 through 65, with measure numbers indicated above the staves. The Solo Daegu staff shows a complex melodic pattern with various ornaments and phrasing marks. The other instruments provide harmonic support, with the Janggu and Daegajung playing a steady, rhythmic accompaniment.

B단락은 Solo대금의 연주로 시작된다. 61-65마디에서 출현하는 악기는 Solo대금과 장구로, 멜로디를 담당하는 파트인 Solo대금의 중심음은 E^b , A^b , B^b 으로 I도 화음에 가까우며, 성질은 음의 성질을 띠고 있다.

<악보 62> B단락 66-70마디

The musical score is arranged in eight staves. The top staff, labeled 'Solo 대금', contains measures 66 through 70, marked with measure numbers 66, 67, 68, 69, and 70. It includes a dynamic marking 'f' at measure 68. The subsequent staves are labeled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and '대아쟁'. The '박 대고' staff is mostly silent, indicated by a double bar line. The other instruments play various rhythmic and melodic patterns corresponding to the measures.

66-70마디에서 Solo대금의 중심음은 A \flat , B \flat , C로 화성은 I 도화음에 가까우며, 성질은 음의 성질로 볼 수 있다. 67마디에서 등장하는 대금은 66-70마디의 Solo대금과 마찬가지로 A \flat , B \flat , C의 세 음으로 연주하여 음의 성질을 가진 I 도 화음이다. 66-70마디에서 Solo대금과 대금이 모두 음의 성질로 연주가 되기 때문에 대아쟁은 E \flat , F, B \flat 의 중심음으로 연주하여 양의 성질을 가진 m1도의 진행으로써 음양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2) 71-80마디

<악보 63> B단락 71-7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71-75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top staff is for the Solo 대금 (Solo Solo). The bottom staves are for the ensemble instruments: 소금 (Solo), 대금 (Solo), 피리 (Solo), 해금 (Solo), 박 대고 (Solo), 장구 (Solo), and 대아쟁 (Solo).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tempo is marked 'f' (forte). The score shows various musical notations including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71마디에서 80마디는 모든 악기가 출현하는 구간이다. 71-75마디 Solo대금은 F, A \flat , C의 중심음으로 음의 성질을 가진 m1도화성의 구조이다. 해당 구간에서 소금과 대금이 B \flat , C, E \flat 의 중심음으로, 화성은 A \flat 을 대신하여 비화성음인 B \flat 이 사용된 I도에 가까우며, Solo대금과 마찬가지로 음의 성질로 연주된다.

소금과 대금이 같은 중심음으로 연주 한 것처럼 해금과 대아쟁이 같은 중심음으로 연주한다. 중심음은 E \flat , F, B \flat 세 음으로, 해당 악곡에서 사용되지 않는 G음을 대신하여 비화성음인 F가 사용되어 V도 화성에 가깝게 연주하며, 두 출현악기가 양의 성질로 연주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악보 64> B단락 76-8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76-80 is written for eight instruments. The key signature has three flats (B-flat major or D-flat minor).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Treble clef, melodic line with various ornaments and slurs.
- 소금**: Treble clef, playing sustained notes with some ornaments.
- 대금**: Treble clef, playing sustained notes.
- 피리**: Treble clef, playing a melodic line starting in measure 77.
- 해금**: Treble clef, playing a melodic line.
- 박대고**: Percussion, playing a steady rhythm.
- 장구**: Percussion, playing a melodic line.
- 대아쟁**: Bass clef, playing a melodic line.

76마디에서 80마디의 구간에서는 피리가 등장하여 B단락에서 최초로 여섯 개의 전 파트가 소리를 내는 구간이다.

Solo대금의 중심음은 F, B \flat , C로, I도 화성의 구성음인 A \flat 을 대신해 비화성음 B \flat 이 사용된 음의 성질을 띤 I도 화성의 구조로 연주된다. 소금과 아쟁은 E \flat 과 F 두 음정으로 지속하여 양의 성질로만 연주가 되고, 반면에 78마디에서 등장하는 피리는 C, B \flat 의 음의 성질을 가진 두 음정으로만 연주를 한다. 대금은 E \flat , F, B \flat 의 세 중심음으로 연주하여 G 음정을 대신해 비화성음 F가 사용된 양의 성질을 가진 V도 화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금은 E \flat 과 F의 중심음으로, 양으로 연주한다.

이로써 소금과 대금, 해금, 대아쟁이 양의 성질로, Solo대금과 피리가 음의 성질로 연주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

3) 81-90마디

<악보 65> B단락 81-8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81-85, B-section,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top staff is for the Solo 대금 (Solo Flute), and the bottom staves are for the ensemble instruments: 소금 (Small Gong), 대금 (Flute), 피리 (Piri), 해금 (Haegeum), 박대고 (Bakdaego), 장구 (Jagu), and 대아쟁 (Daesajung).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shows measures 81 to 85. The solo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some grace notes. The ensemble part provides harmonic support with various instruments. Dynamics include f (forte) and mf (mezzo-forte).

81마디에서 90마디의 구간은 Solo대금과 소금의 화성이 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다. Solo대금의 81-85마디 중심음은 F, A \flat , B \flat , C로 음의 성질인 m1도로 볼 수 있고, 소금의 81-85마디 중심음은 E \flat , F, B \flat 으로, 비화성음 F가 사용된 양의 V도 화성이다. 81-85마디 대금의 중심음은 E \flat , F, B \flat , C로 화성은 I도와 V도 모두에 해당되어 규정할 수 없으며, 음양의 조화를 맞추었다.

피리는 81-90마디에서 E \flat , F의 두 음정이 중심음으로 사용되어 양의 성질을 띤 채로 화성구분 없이 진행된다. 피리가 양으로 연주를 하는 동안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해금은 두 각 동안 음으로 연주하는데, 81-85마디에서 E \flat , B \flat , C의 주요음을 사용한 음의 V도에 가깝게 연주한다.

81-90마디에서는 음양의 조화가 잘 갖추어져 있기에 지속음으로 뒷받침하는 대아쟁은 E \flat , F, B \flat , C 네 주요음을 고르게 사용하며 음과 양의 조화를 갖추며 연주한다.

This musical score is for the piece 'The Wind' by Pyotr Ilyich Tchaikovsky, arranged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score is written for eight instruments: Solo 대금 (Solo Daegeum), 소금 (Sogeum), 대금 (Daegeum), 피리 (Piri), 해금 (Haegeum), 박대고 (Bakdaego),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esaejeong). The music is in 3/4 time and features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mf, f). The Solo 대금 part is the most prominent, featuring a melodic line with a crescendo and a final flourish. The other instruments provide harmonic support and rhythmic accompaniment.

- 77 -

4) 91-100마디

<악보 67> B단락 91-9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91-95, B-section, includes the following parts and dynamics:

- Solo 대금 (Solo Flute):** Measures 91-95. Dynamics: *ff* (91-92), *f* (93-94), *mf* (95).
- 소금 (Sageum):** Measures 91-95. Dynamics: *ff* (91-92), *f* (93-94), *mf* (95).
- 대금 (Daegum):** Measures 91-95. Dynamics: *mf* (91-92), *f* (93-94), *mf* (95).
- 피리 (Piri):** Measures 91-95. Dynamics: *ff* (91-92), *f* (93-94), *mf* (95).
- 해금 (Haegeum):** Measures 91-95. Dynamics: *ff* (91-92), *f* (93-94), *mf* (95).
- 박대고 (Bakdaego):** Measures 91-95. Dynamics: *ff* (91-92), *f* (93-94), *mf* (95).
- 장구 (Janggu):** Measures 91-95. Dynamics: *ff* (91-92), *f* (93-94), *mf* (95).
- 대아쟁 (Daearang):** Measures 91-95. Dynamics: *ff* (91-92), *f* (93-94), *mf* (95).

91-100마디의 두 작은 B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Solo 대금의 강한 선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금을 제외한 파트들이 고정적인 성질로 연주한다.

두 작은 B의 Solo대금과 해금은 음으로 연주된다. Solo대금의 91-95마디 중심음은 E \flat , B \flat , C 세 음으로 I도 혹은 V도 모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성을 규정할 수 없으며, 해금은 E \flat , A \flat , B \flat 의 중심음으로 V도로 연주된다.

해당 두 작은 B에서 양으로 연주되는 악기는 소금과 피리, 아쟁으로, 소금은 한 각, 피리는 두 각을 E \flat , F의 양의 성질인 두 음으로 진행한다. 대아쟁은 91-96마디에서는 B \flat , E \flat , F 세 음정을 사용하여 양의 V도 진행이며, 대금은 91-100마디의 두 각 동안 B \flat 과 F 두 음과 양의 음정을 반복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

<악보 68> B단락 96-100마디

Solo대금의 96-100마디의 중심음은 F, A \flat , B \flat 세 음으로 m1도 진행이며, 해금의 96-100마디의 중심음은 B \flat 으로 화성을 규정할 수 없다. E \flat , F의 두 음으로 진행하던 소금은 96-100마디에서는 B \flat 이 추가되어 양의 V도로 연주된다. 대아쟁은 96-100마디에서는 E \flat 과 F 두 음정으로만 지속한다.

5) 101-110마디

클라이막스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101-105의 다섯 마디 동안 양에 치우쳐 연주되다가, Solo대금이 <대금협주곡 1번>의 최고음인 E \flat 을 연주하는 구간인 106-110마디에서는 음에 치우쳐 연주하게 되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두 각 동안 변화 없이 Solo대금은 음으로, 피리는 양으로 연주된다. 양에서 음으로 성질이 변화하는 악기는 대금, 해금, 아쟁이며, 소금과 대아쟁은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한다.

<악보 69> B단락 101-105마디

Musical score for B-measure 101-105. The score is written for eight instruments: Solo Daegu, So-gu, Daegu, Piri, Haegu, Bap, Daegu, and Daegu.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f* (forte) and *mf* (mezzo-forte). The Solo D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So-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D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Piri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H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Bap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D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Jang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D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101-105마디 Solo대금의 중심음은 E \flat , B \flat , C 세 음의 I 도 진행이며, 피리와 대금, 해금은 양의 E \flat , F 두 음을 중점적으로 연주한다. 101-105마디 소금의 중심음은 B \flat , C, E \flat 으로, 비화성음 B \flat 이 사용된 음의 I 도로 진행되며, 대아쟁은 E \flat , F, B \flat 세 음으로 연주하여 비화성음 F가 사용된 V 도 진행으로 연주된다.

<악보 70> B단락 106-110마디

Musical score for B-measure 106-110. The score is written for eight instruments: Solo Daegu, So-gu, Daegu, Piri, Haegu, Bap, Daegu, and Daegu.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f* (forte) and *mf* (mezzo-forte). The Solo D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So-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D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Piri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H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Bap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D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Jang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The Daegu part starts with a *f* dynamic and ends with a *mf* dynamic.

Solo대금과 피리는 변화 없이 음과 양으로 연주되며, 106-110마디에서 대금은 B♭과 C 두 음을 사용하고 해금은 B♭을 사용하는데, 두 파트 모두 B♭에 강하게 악센트를 주어 연주한다. 소금의 중심음은 B♭, C, E♭에서 106마디 이후 F 음정이 추가되며, 아쟁은 B♭과 F 두 음정만을 사용해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한다.

6) 111-120마디

111-120마디의 두 각도 앞의 두 각과 마찬가지로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며 연주된다. 111-115마디에서 다섯 파트가 양으로, 한 파트만 음으로 연주하다가 116-120마디에서는 네 파트가 음으로, 두 파트가 양으로 연주되어 두 각에 걸쳐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

<악보 71> B단락 111-115마디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파트는 소금과 해금, 대아쟁으로, 소금은 음으로 지속하며, 해금과 대아쟁은 양으로 지속한다. 소금의 중심음은 F, A♭, B♭로 음의 m1 진행이며, 해금과 대아쟁은 E♭, F, B♭ 세 음으로 연주하여 양의 V도로 진행하다가, 116마디 이후 E♭, F 두

음으로만 연주한다. 해금과 대아쟁이 116-120마디에서 양을 담당하는 악기로, 음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 \flat 과 F 두 양의 음정으로만 연주하여 양의 성질이 도드라지도록 연주한다.

성질이 변화하는 파트는 Solo대금, 피리, 대금이다. 111-115마디의 Solo대금과 피리는 같은 구간의 해금과 동일하게 E \flat , F, B \flat 의 주요음으로 연주하여 양의 V도 진행되며, 대금은 E \flat , F 두 음정으로만 연주해 음양성질을 구분할 수 없다.

<악보 72> B단락 116-12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16-120, B-section, features the following parts:

- Solo 대금**: Melodic line with ornaments, marked *mf*.
- 소금**: Sustained notes, marked *mf*.
- 대금**: Sustained notes, marked *mf*.
- 피리**: Sustained notes, marked *mf*.
- 해금**: Sustained notes.
- 박대고**: Sustained notes.
- 장구**: Rhythmic patterns.
- 대아쟁**: Sustained notes.

소금, 해금, 대아쟁은 성질이 변화하지 않아 111-115마디와 같이 116-120마디에서도 소금은 음으로 지속하며, 해금과 대아쟁은 양으로 지속한다. 116-120마디에서 Solo대금과 대금, 피리는 모두 음의 성질로 연주되는데, Solo대금은 A \flat , B \flat , C, F의 네 주요음인 음의 I도로, 대금은 B \flat , C, E \flat 세 음정을 사용하여 Solo대금과 마찬가지로 음의 I도이며, 피리는 음의 성질인 A \flat , C 두 음으로 진행된다.

7) 121-130마디

해당 구간은 곡의 클라이막스가 종료됨에 따라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구간으로, 연음형식이 눈에 띄게 나타나 Solo대금의 연주가 멎을 때 대금과 해금, 대아쟁이 순차적으로 출현하는 구간이다.

<악보 73> B단락 121-12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21-125 is written for a B-measure.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jeom):** Measures 121-125. Starts with a melodic line, marked *mf* at measure 124.
- 소금 (Sojeom):** Measures 121-125. Mostly rests, with a melodic line starting at measure 124.
- 대금 (Daejeom):** Measures 121-125. Mostly rests, with a melodic line starting at measure 124.
- 피리 (Piri):** Measures 121-125. Starts with a melodic line, marked *mp* at measure 122.
- 해금 (Haejeom):** Measures 121-125. Mostly rests, with a melodic line starting at measure 124.
- 박 대고 (Badaego):** Measures 121-125. Mostly rests.
- 장구 (Janggu):** Measures 121-125. Starts with a melodic line, marked *mp* at measure 122.
- 대아쟁 (Daeajang):** Measures 121-125. Mostly rests.

121-125마디에서는 Solo대금, 대금, 피리가 연주하며, 125마디 이후 해금이 등장한다. Solo대금은 음으로, 대금은 양으로, 피리는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되어 이 각(Phrase)은 음양의 조화가 매우 잘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Solo대금의 중심음은 F, B \flat , C의 세 음으로 비화성음 B \flat 이 사용된 m1도이며, 대금은 양의 성질인 E \flat 한 음정을 지속한다. 피리는 E \flat , B \flat 의 두 중심음으로 연주되어 화성 및 음양의 구분을 지을 수 없다.

<악보 74> B단락 126-13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26-130 is arranged in eight staves. The top staff is for Solo 대금 (Solo Daegu), which is silent until measure 130 where it plays a single note marked *mf*. The second staff is for 소금 (Sogum), also silent until measure 130. The third staff is for 대금 (Daegu), playing a melodic line with a *mf* dynamic in measure 128. The fourth staff is for 피리 (Piri), playing a melodic line with a *mp* dynamic in measure 126. The fifth staff is for 해금 (Haegeum), playing a melodic line with a *mp* dynamic in measure 126. The sixth staff is for 박대고 (Bakdaego), playing a steady rhythm. The seventh staff is for 장구 (Janggu), playing a steady rhythm. The eighth staff is for 대아쟁 (Daearang), playing a steady rhythm. The key signature has three flats (B-flat major or D-flat minor),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126-130마디에서는 대금과 피리, 해금, 대아쟁이 연주하며, Solo대금과 소금은 마지막 마디인 130마디에서 출현한다. 이 때 출현하는 Solo대금과 소금이 양의 성질인 E \flat 과 F로 출현하여 B단락의 종지에 해당하는 131-140마디에 다다르기 전 순간적으로 양이 늘어나는 구간이다. 양으로 연주하는 파트는 피리와 대아쟁으로, E \flat , F, B \flat 세 중심음으로 연주되어 양의 V도진행이다. 음으로 연주하는 파트는 해당 구간에서 주선율을 담당하는 해금으로, A \flat , B \flat , C, E \flat 의 중심음으로 연주하여 음의 I도진행이다. 123마디에서 양으로 출현했던 대금은 125마디 이후 중심음 A \flat , B \flat , E \flat , F으로 연주하여 해금과 같은 I도 진행이지만,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연주된다.

8) 131-140마디

B단락의 종지부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음의 성질에 치우쳐 앞서 126-130마디의 구간에서 양에 치우친 것을 쇠신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구간이다.

<악보 75> B단락 131-13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31-135 is arranged in seven staves. The key signature ha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Alto):** Measures 131-135. Notes: 131 (B-flat), 132 (B-flat), 133 (B-flat), 134 (B-flat), 135 (B-flat). Dynamics: *mf* at 132, *mp* at 135.
- 소금 (Soprano):** Measures 131-135. Notes: 131 (B-flat), 132 (B-flat), 133 (B-flat), 134 (B-flat), 135 (B-flat). Dynamics: *mp* at 131, *mf* at 132, *mp* at 135.
- 대금 (Alto):** Measures 131-135. Notes: 131 (B-flat), 132 (B-flat), 133 (B-flat), 134 (B-flat), 135 (B-flat). Dynamics: *mp* at 131, *mf* at 132, *mp* at 135.
- 피리 (Percussion):** Measures 131-135. Notes: 131 (B-flat), 132 (B-flat), 133 (B-flat), 134 (B-flat), 135 (B-flat). Dynamics: *mp* at 131, *mf* at 132, *mp* at 135.
- 해금 (Horn):** Measures 131-135. Notes: 131 (B-flat), 132 (B-flat), 133 (B-flat), 134 (B-flat), 135 (B-flat). Dynamics: *mp* at 131, *mf* at 132, *mp* at 135.
- 박 대고 (Trumpet):** Measures 131-135. Notes: 131 (B-flat), 132 (B-flat), 133 (B-flat), 134 (B-flat), 135 (B-flat). Dynamics: *mp* at 131, *mf* at 132, *mp* at 135.
- 장구 (Bass):** Measures 131-135. Notes: 131 (B-flat), 132 (B-flat), 133 (B-flat), 134 (B-flat), 135 (B-flat). Dynamics: *mp* at 131, *mf* at 132, *mp* at 135.

전체 파트가 출현하는 130-135마디의 구간에서 양으로 연주하는 파트는 Solo대금이며, 음에 해당하는 파트는 대금과 피리, 대아쟁이다. 소금과 해금은 조화를 맞추어 연주한다. Solo대금의 중심음은 E \flat , F로 양의 성질이 강하게 연주된다. 음으로 진행되는 대금과 피리, 대아쟁의 중심음은 공통적으로 B \flat 과 C가 속하며, 피리는 이에 F가 추가되어 F, B \flat , C 구성의 m1도, 대아쟁은 이에 E \flat 이 추가되어 B \flat , C, E \flat 구성의 I도 진행이다. 소금은 F와 B \flat 두 음정으로 진행하며, 해금은 이에 E \flat 과 A \flat 이 추가되어 E \flat , F, A \flat , B \flat 의 V도 진행으로 음양의 조화를 갖추어 연주한다.

<악보 76> B단락 136-14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36-140 is arranged in eight staves. The top staff, labeled 'Solo 대금', contains the melody with dynamic markings *mf* and *mp*, and a crescendo hairpin. The second staff, '소금', and the third, '대금', provide harmonic support. The fourth staff, '피리', and fifth, '해금', also contribute to the texture. The sixth staff, '박 대고', and seventh, '장구', show the rhythmic accompaniment with specific notation for '박' (clap) and '장구' (janggu). The bottom staff, '대아쟁', provides a bass line. Measure numbers 131, 136, 137, 138, 139, and 140 are indicated above the staves.

136-140마디는 악지에 해당하는데, B단락의 악지는 A단락과 마찬가지로 E \flat (黃)과 A \flat (林)으로 종지하기 때문에 파트별 중심음의 구성이 유사하다.

해당 구간에서 음으로 진행하는 파트는 Solo대금과 해금, 피리이며, 대금은 양으로, 소금과 대아쟁은 중전과 마찬가지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된다. E \flat (黃)으로 종지하는 Solo대금과 피리의 중심음은 E \flat , A \flat , B \flat 으로 음의 성질의 V도로 진행된다. 음으로 연주하는 또 다른 파트인 해금은 A \flat (林)으로 종지하기 때문에 F, A \flat , B \flat 의 중심음으로 m1도 진행을 보인다. Solo대금과 마찬가지로 E \flat (黃)으로 종지하는 대금은 E \flat , F, B \flat 의 중심음으로 진행해 양의 성질인 V도이며, 소금과 대아쟁은 각각 E \flat , B \flat 의 중심음, E \flat , A \flat 의 중심음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었다.

3. C단락의 화성 및 음양 성질 분석

1) 141-150마디

A단락의 재현부라 할 수 있는 C단락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A단락의 도입부와 유사하게 대금과 해금, 더불어 피리까지 솔로로 연주를 시작한 후 148마디에서 Tutti로 연주하게 되는 구간이다.

<악보 77> C단락 141-14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41-145 is written for a traditional Korean ensemble. The tempo is marked as $\text{♩} = \text{ca. } 50$. The score includes parts for Solo Daegu (Solo 대금), So-gu (소금), Daegu (대금), Piri (피리), Hae-gu (해금), Pak-daegu (박대고), Janggu (장구), and Daegajung (대아쟁). The Solo Daegu part is marked with *mf* and *mp* dynamics. The Daegu part is marked with *mf* and *mp* dynamics. The Hae-gu part is marked with *mf* and *mp* dynamics. The Pak-daegu, Janggu, and Daegajung parts are marked with *mf* and *mp* dynamics. The score is in 4/4 time and features a variety of musical notations, including eighth notes, quarter notes, and half notes, as well as rests and dynamic markings.

Solo대금의 141-145마디 중심음은 $E\flat$, F , $A\flat$ 으로, <대금협주곡 1번>에서 사용되지 않는 음정인 D 를 대신해 비화성음 $E\flat$ 이 사용된 양의 IV도이다. IV도 진행은 해당 곡에서 첫 출현하는 화성으로, 두 각이 진행되는 동안 타 파트들의 음양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두 각을 통틀어서 분석할 경우에는 Solo대금의 중심음이 $E\flat$, $F\flat$, $A\flat$, $B\flat$ 네 음정으로, 음양의 조화를 갖추어 연주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1-145마디에서 피리는 E♭, F의 양의 두 음으로만 진행되며, 소금은 145마디에서 E♭으로 출현해 양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해금은 F, B♭의 중심음, 대금은 E♭, F, B♭, C의 중심음으로 연주되어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된다.

<악보 78> C단락 146-150마디

Solo대금과 피리, 해금의 146-150마디의 중심음은 E♭, F, B♭으로 양의 V도로 진행된다. 소금의 중심음은 F, B♭이며, 대금의 중심음은 141-145마디와 동일하게 E♭, F, B♭, C 네 음, 대아쟁은 E♭, B♭ 두 음정만을 지속하기 때문에 세 파트는 음양의 조화를 갖추어 연주된다.

2) 151-160마디

Solo대금을 제외한 각 파트의 음양성질은 앞의 두 각과 마찬가지로 두 각 동안 변화하지 않으나, 화성은 변화하여 진행된다. 앞서 양에 치우쳐 연주되었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음양이 조화롭게 연주된다.

양으로 연주되는 파트는 소금, 대금, 대아쟁이며, 음으로 연주되는 악기는 피리와 156마디 이후의 Solo대금, 음양의 음정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파트는 151-155마디의 대금과 해금이다.

<악보 79> C단락 151-15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51-155, C-section,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Measures 151-155. Dynamics: *mf* (measures 151-153), *mp* (measures 154-155).
- 소금**: Measures 151-155.
- 대금**: Measures 151-155. Dynamics: *mp* (measures 151-153).
- 피리**: Measures 151-155. Dynamics: *mp* (measures 151-153).
- 해금**: Measures 151-155. Dynamics: *mp* (measures 151-153).
- 박대고**: Measures 151-155. Indicated as not played (double bar line and vertical line).
- 장구**: Measures 151-155. Indicated as not played (double bar line and vertical line).
- 대아쟁**: Measures 151-155. Indicated as not played (double bar line and vertical line).

Solo대금의 151-155마디 중심음은 C, E \flat 로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며, 소금은 두 각에 걸쳐 E \flat , F를 연주한다. 대금은 E \flat , F, A \flat 으로 IV도진행, 대아쟁은 E \flat , F, B \flat 으로 V도진행한다.

음의 성질로 연주되는 피리는 B \flat , C, E \flat 으로 I도 진행으로 연주하며, Solo대금의 선율이 단조로운 해당 두 각에서 주선율을 담당하게 되는 해금은 151-155마디에서는 E \flat , F, B \flat , C의 네 주요음으로 음양의 조화를 갖추어 연주한다.

<악보 80> C단락 156-160마디

156-160마디에서 음으로 연주되는 악기는 Solo대금과 대금, 피리이다. Solo대금과 피리는 B \flat , C 두 음정으로만 연주하여 음의 성질이 강하게 연주되며, 대금은 E \flat , F, B \flat 으로 V도로 진행한다. 선율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C단락에서는 파트 간의 모방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이 구간의 대금 화성은 141-150마디의 대금과 마찬가지로 두 각을 한 번에 분석할 경우에는 E \flat , F, A \flat , B \flat 의 구성음으로 조화를 맞추어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아쟁은 156마디 이후 옥타브 간격으로 E \flat 음정을 하향진행해 양으로 연주되며, 해금은 E \flat , C 두 주요음으로 연주하여 조화를 갖추어 연주한다.

3) 161-170마디

C단락에서는 해금이 주요 선율을 담당하며 Solo대금은 연주를 맺는 경우가 몇 차례 있다. 161-170마디는 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160마디에서 연주를 일시적으로 멈춘 Solo대금을 따라 소금과 대금이 162마디에서 연주를 멈추고, 168마디에서 재등장한다.

<악보 81> C단락 161-165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161-165, C-measure. The score is for a string quartet with parts for Solo Violin, Violin I, Violin II, Viola, Cello, Double Bass, and Percussion. Measures 161-165 are shown. The key signature ha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Solo Violin part has rests in measures 161-165. Violin I and II have melodic lines. Viola has a melodic line starting in measure 162. Cello and Double Bass have a rhythmic pattern. Percussion has a simple pattern. Dynamics include 'p' (piano) in measures 163 and 164.

161-165마디에서 양으로 연주하는 파트는 피리와 대아쟁으로, 피리는 C, E \flat , F의 중심음으로 m5도에 가까우며, 대아쟁은 E \flat , F, B \flat 으로 V도 진행한다. 주선율을 담당하는 해금은 E \flat , F, A \flat , B \flat 의 네 주요음을 고루 연주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하며, 소금과 대금은 각각 E \flat 과 B \flat 으로 연주해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

<악보 82> C단락 166-170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166-170, C-measure. The score is for a string quartet with parts for Solo Violin, Violin I, Violin II, Viola, Cello, Double Bass, and Percussion. Measures 166-170 are shown. The key signature ha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Solo Violin part has a melodic line starting in measure 168. Violin I and II have melodic lines. Viola has a melodic line starting in measure 168. Cello and Double Bass have a rhythmic pattern. Percussion has a simple pattern. Dynamics include 'mp' (mezzo-piano) in measures 168 and 169.

166-170마디에서는 Solo대금과 소금, 피리가 양으로 연주하며, 대금과 해금, 대아쟁이 음으로 연주하여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

양으로 연주하는 Solo대금과 소금, 피리는 E \flat , F의 두 음정으로 연주하며, 음으로 연주하는 대금은 B \flat , C의 두 음정으로 연주한다. 해금과 대아쟁은 동일하게 E \flat , B \flat , C 세 음정을 중심으로 연주하여 I 도에 가깝게 진행된다.

4) 171-180마디

이 구간에서는 Solo대금과 소금, 대금 세 파트는 성질 및 주요음이 바뀌지 않고, 피리, 해금, 대아쟁의 세 파트는 주요음 및 성질이 변화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양에 치우쳐 연주되지만, 대금의 경우 음의 성질인 A \flat , B \flat , C 음정으로만 연주하여 양의 성질을 뒷받침한다.

<악보 83> C단락 171-180마디

171-180마디에서 양으로 연주하는 파트는 Solo대금과 소금, 대아쟁이며, 피리와 해금은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연주한다. Solo대금과 소

금의 중심음은 각각 C, E♭, F의 m5도와 E♭, F이며, 대아쟁은 E♭, F, B♭으로 V도에 가깝다. 피리의 중심음은 E♭, F, B♭, C이며 해금은 E♭, F, A♭, C으로 음양의 조화를 갖추었으나 화성구분을 지을 수 없다.

<악보 84> C단락 176-180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76-180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Solo Daegu):** Treble clef, key of E-flat major. Measures 176-180. Dynamics: *mp*.
- 소금 (So-gum):** Treble clef, key of E-flat major. Measures 176-180. Dynamics: *mp*.
- 대금 (Daegu):** Treble clef, key of E-flat major. Measures 176-180. Dynamics: *mp*.
- 피리 (Piri):** Treble clef, key of E-flat major. Measures 176-180. Dynamics: *mp*.
- 해금 (Haegum):** Treble clef, key of E-flat major. Measures 176-180. Dynamics: *mp*.
- 박대고 (Bageo):** Percussion staff. Measures 176-180.
- 장구 (Janggu):** Percussion staff. Measures 176-180.
- 대아쟁 (Daegajeng):** Bass clef, key of E-flat major. Measures 176-180.

176-180마디에서 성질이 변화하는 파트인 피리와 해금, 대아쟁을 살펴보면 조화를 갖추었던 피리의 중심음은 C, E♭, F로 양의 성질인 m5도에 가까우며, 해금은 F, A♭, B♭, C로 음의 m1도이다. 양의 성질로 연주하던 대아쟁은 F, C 두 음정으로 연주해 음양의 조화를 맞추었다. 따라서 176-180마디에서는 두 파트는 음으로, 세 파트는 양으로, 한 파트는 음양을 맞추어 연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5) 181-190마디

해당 구간에서는 피리와 해금, 대아쟁이 처음부터 연주하고 대금은 184마디, Solo대금은 185마디에서 양으로 출현한다. 181-185마디에서 양으로 출현하는 파트는 대금과 대아쟁이며, 음으로 출현하는 파트는 피리와 해금이다. 186-190마디에서 양으로 연주하는 파트는 Solo대금과 해금, 대아쟁이며, 음으로 출현하는 파트는 대금과 피리이다. 따라서 악곡의 종지를 향해가는 해당 두 각(Phrase)에서는 음양이 조화를 맞추어 연주된다.

<악보 85> C단락 181-18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81-185, C-measure, is presented in a multi-staff format. The instruments and their parts are as follows:

- Solo 대금**: Measure rests from 181 to 184, then a note in measure 185.
- 소금**: Measure rests from 181 to 183, then a note in measure 184.
- 대금**: A note in measure 184.
- 피리**: A melodic line with a measure rest in measure 184.
- 해금**: A melodic line with a measure rest in measure 184.
- 박 대고**: Measure rests from 181 to 183, then a note in measure 184.
- 장구**: A melodic line with a measure rest in measure 184.
- 대아쟁**: A melodic line with a measure rest in measure 184.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Dynamics include *p* (piano) and *mp* (mezzo-piano).

181-185마디 대금은 양의 E \flat 으로 출현하고, 피리는 음의 B \flat , C, E \flat 의 진행으로 A \flat 을 대신해 비화성음 B \flat 이 사용된 I도 진행으로 볼 수 있다. Solo대금의 부재에 주선율을 담당하는 해금파트는 F, B \flat , C로 음의 m1도 진행을 보인다. 대아쟁은 181-185마디에서 E \flat , F, B \flat 세 음을 사용해 양의 V도로 진행한다.

<악보 86> C단락 186-190마디

186-190마디에서 Solo대금의 중심음은 C, E \flat , F로 양의 m5도의 진행과 가까우며, 같은 구간 Solo대금과 함께 양으로 연주하는 파트인 해금의 중심음은 E \flat , F, B \flat 으로 V도에 가깝다. 대금의 중심음은 A \flat , B \flat , C로 음의 음정으로만 연주되며, 피리는 B \flat , C, E \flat 의 중심음으로 연주해 I도의 진행을 보인다. 앞서 E \flat , F, B \flat 세 음으로 연주하던 대아쟁은 B \flat 음을 제외하고 E \flat , F 두 음정만을 사용해 양으로 연주된다.

6) 191-200마디

191-200마디는 전체 악곡이 종료되는 부분이다. A, B 단락에서는 E \flat 과 B \flat 으로 나뉘어 종지한 반면 C단락의 악지는 모든 파트가 양인 E \flat 음을 지속하여 마치기 때문에 양에 치우친 채 연주가 종료된다. 하지만 종지음을 내기 전에 모든 파트는 음인 B \flat 음을 거친 후에 E \flat 음정으로 향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 음 진행을 보았을 때는 음양의 조화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87> C단락 191-200마디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eight parts: Solo 대금 (Solo Daegu), 소금 (So-gu), 대금 (Daegu), 피리 (Piri), 해금 (Hae-gu), 박대고 (Bak-daegu), 장구 (Jang-gu), and 대아쟁 (Da-a-jung).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common time (C).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each covering measures 191 to 200.

System 1 (Measures 191-195):

- Solo 대금:** Measures 191-195. Dynamics: *mp* (measures 191-193), *p* (measures 194-195).
- 소금:** Measures 191-195. No notes.
- 대금:** Measures 191-195. Dynamics: *mp* (measures 191-193), *p* (measures 194-195).
- 피리:** Measures 191-195. Notes: 191 (G4), 192 (A4), 193 (B4), 194 (C5), 195 (B4).
- 해금:** Measures 191-195. Notes: 191 (G4), 192 (A4), 193 (B4), 194 (C5), 195 (B4).
- 박대고:** Measures 191-195. Notes: 191 (G4), 192 (A4), 193 (B4), 194 (C5), 195 (B4).
- 장구:** Measures 191-195. Notes: 191 (G4), 192 (A4), 193 (B4), 194 (C5), 195 (B4).
- 대아쟁:** Measures 191-195. Notes: 191 (G4), 192 (A4), 193 (B4), 194 (C5), 195 (B4).

System 2 (Measures 196-200):

- Solo 대금:** Measures 196-200. Dynamics: *mp* (measures 196-197), *p* (measures 198-199), *pp* (measure 200).
- 소금:** Measures 196-200. Notes: 196 (G4), 197 (A4), 198 (B4), 199 (C5), 200 (B4).
- 대금:** Measures 196-200. Dynamics: *mp* (measures 196-197), *p* (measures 198-199), *pp* (measure 200).
- 피리:** Measures 196-200. Notes: 196 (G4), 197 (A4), 198 (B4), 199 (C5), 200 (B4).
- 해금:** Measures 196-200. Notes: 196 (G4), 197 (A4), 198 (B4), 199 (C5), 200 (B4).
- 박대고:** Measures 196-200. Notes: 196 (G4), 197 (A4), 198 (B4), 199 (C5), 200 (B4).
- 장구:** Measures 196-200. Notes: 196 (G4), 197 (A4), 198 (B4), 199 (C5), 200 (B4).
- 대아쟁:** Measures 196-200. Notes: 196 (G4), 197 (A4), 198 (B4), 199 (C5), 200 (B4).

4. 소결

해당 곡에서 작곡가는 각 악기가 연주하는 음정 간 음양의 조화를 꾀하고, 나아가 여러 파트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에서도 음양의 조화를 꾀하였다.

각 파트는 음이나 양 한 쪽으로 치우쳐 연주할 때도, 음과 양을 고르게 사용하여 연주할 때도 있는데, 파트를 모아서 한 번에 볼 경우, 또 Phrase를 넘어 볼 경우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연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음에 치우쳐 연주되는 Phrase에서 어떠한 파트는 양의 음정만을 지속하여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완화시키며, 두 각(Phrase) 이상 음의 성질에 치우칠 경우 다음 두 각 이상은 양에 치우치도록 연주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단락이 종료될 때에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A단락과 B단락에서는 여러 파트가 E \flat 과 B \flat 으로 나뉘어 종지하며 C단락에서는 모든 파트가 E \flat 으로 종지한다. 이 때 양의 성질인 E \flat (黃)으로 종지하는 파트는 음의 성질인 A \flat (仲) 혹은 B \flat (林)의 음정을 거쳐 E \flat 에 도달하며, 음인 B \flat (林)으로 종지하는 파트는 양의 성질인 E \flat (黃) 혹은 F(太) 음을 거쳐 B \flat 에 도달해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종지하게 된다.

파트별 진행 음정의 중심음을 따 화성을 구성해보면 I도와 V도 화성의 구성음과 유사한 진행이 가장 많으며, 화성 구성음에 속하지 않는 비화성음이 사용된다. C단락에서는 특징적으로 IV도와 m5도의 진행도 등장하는데, 이는 C단락이 악곡이 끝나는 마지막 단락이기 때문에 앞서 사용된 음진행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파트 간 모방형식의 선율진행이 사용되어 IV도와 m5도 진행이 두 번 이상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화성 구성음간의 음간격은 2도 혹은 4도와 5도 간격인데, 이는 전통음악에서 많이 나타나는 화음으로 화성에서도 전통음악적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김승근 작곡 <대금협주곡 1번>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악곡 구조를 파악하고, 독주대금과 관현악군의 선율진행과, 서로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합주협주곡으로 작곡된 해당 곡의 합주협주곡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금협주곡 1번>의 악기편성은 Solo대금과 소금, 대금, 피리, 해금, 장구, 대고, 박, 대아쟁으로, 일반적으로 관현악에 편성되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현악기군이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국악관현악 편성이며, 정악의 관악합주와 유사한 편성이다. 악곡의 형식은 합주협주곡 형식(Concerto Grosso)으로, 관현악 파트의 솔로선율 및 Tutti선율이 Solo대금과 서로 대립 및 화합하여 연주되는 것을 통해 독주악기군과 합주군이 대비를 이루는 합주협주곡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해금선율이 Solo대금과 더불어 주선율을 연주하는 경우가 잦아 Solo대금과 해금을 독주악기군, 타 파트를 합주군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합주협주곡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단락장으로 이루어져있는 이 곡은 박자와 선율의 진행방식,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A-B-C단락으로 구분된다. 각 단락은 도입-전개-마무리에 해당되며, A단락에서 주로 사용된 음향효과가 C단락에서도 사용되어, A-B-A'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락과 마찬가지로 악곡의 박자 또한 대칭구조이다. 해당 악곡의 박자는 4+3+5+3+4/4박으로, 가운데 박인 5박을 중심으로 대칭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섯 마디가 한 Phrase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박자체계는 전통음악에서 나타나는 박자와 유사하여 각 마디는 한 대강으로, 다섯 대강을 한 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음계는 정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黃(E b), 太(F), 仲(A b), 林(B b), 南(C) 의 5음 음계가 사용되며, 선율진행 및 장단, 악기편성도 관악영산회상이나 수제천, 동동 등 정악의 관악합주와 유사하여 정악적 색채를 느낄 수 있다. 장구장단은 갈라치는 형식을 사용하며, 대다수의 정악곡과 마찬가지로 ‘박’의 신호로 매 단락이 마무리된다. 선율 진행은 연음형식을 사용해 합주 시에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소리를 맺기 전 타 파트가 맞물려 나오도록 한다.

넷째, 단락별 특징선율이 상이하여 A단락에서는 4도와 5도의 도약 및 하향진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A단락의 클라이막스에서는 도약 및 하행이 혼합된 응용진행을 찾아볼 수 있다. 연음형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곡의 선율 진행과 대비되는 효과인, 소리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모이도록 하는 음향 효과는 선율적 강조를 위해 곡의 전개에 해당하는 B단락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 B단락은 강한 셈여림과 높은 음역대가 사용되며, 연음형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곡의 선율 진행과 대비되는 효과인, 순간적으로 소리가 부딪히는 음향효과를 사용해 곡의 전개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A단락의 변형형태의 재현부인 C단락에서는 A단락에서 주로 사용된 4도 및 5도 하향과, B 단락에서 일부 사용된 모방형식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대금협주곡 1번>의 화성체계는 작곡가가 동양철학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화성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음양의 조화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서양음악의 화성법적 체계와 구분된다. 각 Phrase 별 연주되는 파트의 중심음을 분석한 결과 비화성음이 사용된 I 도 혹은 V 도 진행이 가장 많았으며, 화성 구성음의 음간격은 전통음악에서 많이 나타나는 2도 혹은 4도와 5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으로, <대금협주곡 1번>에 대한 음악적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형식은 서양음악의 합주협주곡(Concerto Grosso)양식을 접목하고,

음악어법은 전통음악적으로 작곡된 이 곡은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느린 선율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 개인의 테크닉적 기량 보다는 공력이 필요한 곡이다. 또한, 4+3+5+3+4박으로 혼합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마디 및 Phrase를 넘나드는 지속음이 많기 때문에 연주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연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 『음악용어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1
- 『최신 시사상식 핵심 용어사전』, 박문각, 박문각시사상식편집부, 2014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96
- 변계원, “20C초 한국 전통음악계의 혁신-창작국악의 발생과정 연구”, 『예술논집』, 2009, Vol.9, p.147
- 윤소희, 『국악창작곡의 흐름과 분석』, 서울 : 국악춘추사, 2001
-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 보고사, 2012
-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 국립국악원, 『국악연혁』, 서울 : 국립국악원, 1982

<논문>

- 정소희, 「대금협주곡의 전개양상 및 음악특징」,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2016
- 이 결, 「강은구의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4
- 계성원, 「창작국악관현악의 작곡기법 변천연구: 시대별 음악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2002
- 권새별, 「전통합주와 국악관현악에서 해금의 전개양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5
- 안혜진, 「김승근 작곡 <해금합주협주곡 1번>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주민경, 「김대성의 대금협주곡 <폴꽃> 분석연구: 독주대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정재우,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 여수연, 「김승근 작곡 <해금독주곡 2004>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5
- 김정승, 「대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 임진옥, 「국악관현악의 현황과 전망」, 『한국전통음악학』 제8호, 한국전통음악학회, 2007, 253-262쪽
- 박소민, 「대금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적 환상곡 <폴>의 독주대금 선율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5
- 이상원, 「대바람소리의 분석 연구: 대금의 선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이아람, 「이찬해 작곡 ‘대금독주를 위한 숨’ 분석 연구: 괄씨 부인 죽는 대목의 서시구조와 대금주법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2014
- 채화정, 「대금협주곡 <타래>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1
- 김순화, 「이성천의 해금을 위한 작은 합주협주곡 <황소의 언덕>에 대한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원우가, 「동양철학사상을 활용한 작곡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 장보윤, 「이상규의 국악관현악곡에 나타난 화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 김윤조, 「이성천 대금독주곡 “독주곡 66번 <큰-나무 이야기, 둘>”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1
- 김일중, 「김대성의 관현악곡 <여림을 넘어서>의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Abstract

An analytic study on 「Daegeum Concerto No. 1」 Composed by Kim Sngkn

KIM Ga-Ryoung
Department of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looks at <Daegeum Concerto No.1>, the work of Sngkn Kim made at the request of the 13th regular concert by 'Daegeum Research Society'. In detail, it analyzes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song, its melody and chord, and then the grand music world of the composer. The following is the result.

First, the overall structure of <Daegeum Concerto No.1> has characteristics of Concerto Grosso. To be more specific, the solo melody of solo orchestral instrument and Tutti melody make a contrast and also a great harmony with solo Daegeum. Furthermore, main melody of the song frequently involves Haegeum thus making Haegeum classified as solo instrument group as well as Daegeum. These features are commonly found in Concerto Grosso.

Second, the instrumental composition of this song can be

classified as “Small Scale Korean music for orchestra formation” which is very similar to Korean court music wind ensemble. This is because the song comprises of Solo Daegeum, Sogeum, Daegeum, Piri, Haegeum, Janggu, Daego, Bak and Dae-Ajaeng, but Gayageum nor Geomungo which are usually included in orchestra music.

Third, <Daegeum Concerto No.1>, a single-movement song, can be divided into A-B-C parts according to different rhythm, melody and speed. Each part corresponds to respectively introduction-development-ending, and shows different unique melody. In Part A, the main feature of melody is the jump and downfall of chord 4 and 5. Also in climax of Part A, appeared is the mixture of such jump and downfall. In Part B, used are strong dynamic marks, high notes and crashing sounds. Especially the instance crashing sound effect makes huge contrast with the rest of this song, which is usually comprised of prolonged notes, thus making the development of the song definite. In Part C, a modified version of Part A, also used are the downfall of chord 4 and 5 and some reminiscence of Part B. In short, this song has A-B-A' structure.

Fourth, just as the three parts mentioned above make a symmetry altogether, beats of this song also shows a symmetry. The beats of this song proceed as follows: $4/4$ - $3/4$ - $5/4$ - $3/4$ - $4/4$. That is, the beat structure makes a symmetry having $5/4$ time as center. And each phrase consists of the 5 bars. This beat structure is similar to tha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us each bar can be considered as one ‘Taegang’, while five

Taegang can be regarded as one 'Gak'.

Fifth, <Daegeum Concerto No.1> has several features of Korean court music. It is based on a pentatonic scale of E \flat , F, A \flat , B \flat and C, which is very commonly found in Korean court music. Furthermore, the melody flow, rhythm and the composition of musical instruments resemble those of Korean court music wind ensemble. The "Bak" signal finishes each paragraph. Also the overall melody is in note-prolonging style, in which following note comes before the precedent note ends so that the whole melody does not get disconnected in the middle.

Sixth, <Daegeum Concerto No.1> has an unique chord structure created by the song writer, which is very distinct from Western music which is based on the law of chord. It has its basis on Eastern philosophy, thus is focused mainly on the balance of yin and yang. Analyzing center notes of each musical instrument of each phrase, most commonly found was I and V chord which use nonharmonic notes. The gap of notes used in each chord are second chord, tetrachord and the fifth chord which are commonly found in traditional music.

The above are the results of this musical analysis of <Daegeum Concerto No.1>. This findings would hopefully help readers to better understand and play the song.

.....

Key Words : daegeum, daegeum concerto, concerto grosso, Korean orchestra, yin and yang

Student Number : 2015-21946

부록 악보

대금 협주곡

Score

$$\frac{4+3+5+3+4}{4} \text{ ♩ } \boxed{\text{A}} = \text{ca. } 60$$

김승근(2013)

1 4 2 3 4 5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6 7 8 9 10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6 7 8 9 10

대금 협주곡

11 12 13 14 15

Solo 대금

11 12 13 14 15

소금

대금

피리

해금

11 12 13 14 15

박
대고

11 12 13 14 15

장구

11 12 13 14 15

대아쟁

16 17 18 19 20

Solo 대금

mp

16 17 18 19 20

소금

대금

피리

해금

16 17 18 19 20

박
대고

16 17 18 19 20

장구

16 17 18 19 20

대아쟁

대금 협주곡

21 22 23 24 25

Solo 대금 *mp*

소금

대금

피리

해금

21 22 23 24 25

박
대고

21 22 23 24 25

장구

21 22 23 24 25

대아쟁

26 27 28 29 30

Solo 대금 *mf* *f*

소금

대금 *mf* *f*

피리

26 27 28 29 30

해금 *p* *mp* tutti

26 27 28 29 30

박
대고

26 27 28 29 30

장구

26 27 28 29 30

대아쟁

대금 협주곡

31 32 33 34 35

Solo 대금 *mp*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36 37 38 39 40

Solo 대금 *mf* *f* *mf*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대금 협주곡

41 42 43 44 45

Solo 대금 *mf*

소금

대금

피리

해금

41 42 43 44 45

박
대고

장구

대아쟁

46 47 48 49 50

Solo 대금 *mf*

소금

대금

피리

해금

46 47 48 49 50

박
대고

장구

대아쟁

대금 협주곡

51 52 53 54 55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56 57 58 59 60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대금 협주곡

B ♩ = ca.70

Solo 대금

61 62 63 64 65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66 67 68 69 70

Solo 대금

66 67 68 69 70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대금 협주곡

Solo 대금

71 *f*

소금

71 72 73 74 75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71 72 73 74 75

장구

71 72 73 74 75

대아쟁

Solo 대금

76

소금

76 77 78 79 80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76 77 78 79 80

장구

76 77 78 79 80

대아쟁

대금 협주곡

81 82 83 84 85

Solo 대금

81 82 83 84 85

소금

81 82 83 84 85

대금

f

81 82 83 84 85

피리

f *mf*

81 82 83 84 85

해금

f *mf*

81 82 83 84 85

박대고

81 82 83 84 85

장구

81 82 83 84 85

대아쟁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 대고
 장구
 대아쟁

대금 협주곡

Solo 대금

91 *ff* *f* 93 94 95 *mf*

소금

91 92 93 94 95

대금

91 92 93 94 95 *mf*

피리

91 *ff* *f* *mf*

해금

91 *ff* *f* *mf*

박
대고

91 92 93 94 95

장구

91 92 93 94 95

대아쟁

91 92 93 94 95

Solo 대금

96 *ff* *f* 98 99 100

소금

96 97 98 99 100

대금

96 97 98 99 100

피리

96 *ff* 97 98 99 100

해금

96 *ff* 97 98 99 100

박
대고

96 97 98 99 100

장구

96 97 98 99 100

대아쟁

96 97 98 99 100

대금 협주곡

101 102 103 104 105

Solo 대금 *f* *mf*

소금 101 102 103 104 105

대금

피리 *mf*

해금 *mf*

박대고 101 102 103 104 105

장구 101 102 103 104 105

대아쟁

106 107 108 109 110

Solo 대금 *f* *mf*

소금 106 107 108 109 110

대금

피리 *mf* *f* *f*

해금 *mf* *f* *f*

박대고 106 107 108 109 110

장구 106 107 108 109 110

대아쟁

대금 협주곡

111 112 113 114 115

Solo 대금 *mf* *f* *mf*

소금 111 112 113 114 115

대금 *mf* *mf*

피리

해금

111 112 113 114 115

박 대고

장구 111 112 113 114 115

대아쟁

116 117 118 119 120

Solo 대금 *mf*

소금 116 117 118 119 120

대금 *mf*

피리

해금

116 117 118 119 120

박 대고

장구 116 117 118 119 120

대아쟁

대금 협주곡

121 122 123 124 125

Solo 대금 *mf*

소금

대금 *mp*

피리 *mp*

해금

박
대고 121 122 123 124 125

장구 121 122 123 124 125

대아쟁

126 127 128 129 130

Solo 대금 *mf*

소금

대금 *mf*

피리 *mp*

해금 *mp*

박
대고 126 127 128 129 130

장구 126 127 128 129 130

대아쟁

대금 협주곡

Solo 대금

131 132 133 134 135

mf *mp*

소금

131 132 133 134 135

대금

mp *mf* *mp*

피리

해금

131 132 133 134 135

박
대고

장구

131 132 133 134 135

대아쟁

Solo 대금

136 137 138 139 140

mf *mp* *p*

소금

136 137 138 139 140

대금

p

피리

p

해금

p

136 137 138 139 140

박
대고

장구

136 137 138 139 140

p

대아쟁

p

대금 협주곡

[C] ♭ = ca.50

Solo 대금

소금

대금

피리

해금

박대고

장구

대아쟁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mf *mp* *tutti*

대금 협주곡

151 152 153 154 155

Solo 대금 *mf*

151 152 153 154 155

소금

151 152 153 154 155

대금 *mp*

151 152 153 154 155

피리 *mp*

151 152 153 154 155

해금 *mp*

151 152 153 154 155

박
대고

151 152 153 154 155

장구

151 152 153 154 155

대아쟁

156 157 158 159 160

Solo 대금

156 157 158 159 160

소금

156 157 158 159 160

대금 *mf*

156 157 158 159 160

피리

156 157 158 159 160

해금

156 157 158 159 160

박
대고

156 157 158 159 160

장구

156 157 158 159 160

대아쟁

대금 협주곡

161 162 163 164 165

Solo 대금

161 162 163 164 165

소금

161 162 163 164 165

대금

161 162 163 164 165

피리

161 162 163 164 165

해금

161 162 163 164 165

박
대고

161 162 163 164 165

장구

161 162 163 164 165

대아쟁

166 167 168 169 170

Solo 대금

166 167 168 169 170

소금

166 167 168 169 170

대금

166 167 168 169 170

피리

166 167 168 169 170

해금

166 167 168 169 170

박
대고

166 167 168 169 170

장구

166 167 168 169 170

대아쟁

p

p

mp

mp

대금 협주곡

Solo 대금

171 172 173 174 175

mf

소금

171 172 173 174 175

대금

171 172 173 174 175

mf *mp*

피리

171 172 173 174 175

해금

171 172 173 174 175

박
대고

171 172 173 174 175

장구

171 172 173 174 175

대아쟁

171 172 173 174 175

Solo 대금

176 177 178 179 180

mp

소금

176 177 178 179 180

대금

176 177 178 179 180

mp

피리

176 177 178 179 180

mp

해금

176 177 178 179 180

mp

박
대고

176 177 178 179 180

장구

176 177 178 179 180

대아쟁

176 177 178 179 180

대금 협주곡

181 182 183 184 185

Solo 대금

181 182 183 184 185

소금

181 182 183 184 185

대금

181 182 183 184 185

피리

mp

181 182 183 184 185

해금

p *mp*

181 182 183 184 185

박
대고

181 182 183 184 185

장구

181 182 183 184 185

대아쟁

186 187 188 189 190

Solo 대금

mf

186 187 188 189 190

소금

186 187 188 189 190

대금

mf

186 187 188 189 190

피리

186 187 188 189 190

해금

186 187 188 189 190

박
대고

186 187 188 189 190

장구

186 187 188 189 190

대아쟁

대금 협주곡

191 192 193 194 195

Solo 대금 *mp* *p*

소금

대금 *mp* *p*

피리

해금

박
대고 191 192 193 194 195

장구 191 192 193 194 195

대아쟁

196 197 198 199 200

Solo 대금 *mp* *p* *pp*

소금

대금 *mp* *p* *pp*

피리 *pp*

해금 *pp*

박
대고 196 197 198 199 200

장구 196 197 198 199 200 *pp*

대아쟁 *pp*